

#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PAPAYA STORY

외국인주민을 위한 토털정보서비스 파파야 스토리

www.papayastory.com

지금 스마트폰에서 papayastory를 검색하세요

제303호 2025년 10월 16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7층(주네브 썬월드 메디컬동) 8호 인쇄인 장용호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64 (주)아이피디 / danews1@daum.net 후원계좌 경기다문화뉴스 110-408-662725 신한은행 <1쇄>



##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 도움 자격증 과정 마쳤어요”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10월 1일 결혼이민자 취업·자립을 위한 자격증 교육 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실습 중심의 전문교육 과정으로, 미용사(헤어) 국가자격증반 12명 중 11명이 수료하고 4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관련 기사 22면> 김영의 기자

## 경기도 이주민만 누릴 수 있는 3가지 보육, 돌봄, 문화 혜택

###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경기도가 10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단가를 기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0~5세)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물가와 보육료 상승 등으로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원단가를 월 5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록 외국인 영유아(0~5세)로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는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현숙 보육정책과장은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해 외국인 영유아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해오

경기도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시행한 후 1년 만에 참여 공동체와 돌봄 아동 수가 모두 6배 이상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공적 돌봄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마을 돌

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가 없이 이웃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기회소득을 지급해 참여를 독려한다.

지급액은 올해부터 월 30시간 활동 시 20만원, 월 15시간 이상 활동 시 10만원을 지급한다. 다문화가족들도 국적 별로 혹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아동돌봄 공동체를 조직할 수 있겠다.

첫해인 2024년 9월 23개 마을공동체 주민 57명에게 처음 지급을 시작했으며, 올해 9월에는 29개 시군 150개 공동체 주민 520명에게 기회소득이 지급됐다. 돌봄을 받은 아동 수도 같은 기간 524명에서 3,403명으로 늘어났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 ‘도담소’ 작은결혼식 문 연다

경기도는 도민 소통공간인 ‘도담소’를 작은결혼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1호 예비부부를 모집한다. 작은결혼식은 연중 운영되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한 차례씩 열린다. 예식은 야외정원에서 진행되며, 날씨가 좋지 않거나 겨울철에는 대연회장이 예식 공간으로 활용된다.

하객 규모는 100명 이내이며, 사용료는 3만 원 내외이다. 예식 진행과 장식, 피로연 등은 예비부부가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비부부 또는 도내 직장·학교에 다니는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예식일 6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031-8008-3716

<중국어 13면, 태국어 13면, 영어 34면, 몽골어 28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지자체별  
지면 안내



언어별  
지면 안내



섹션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수원 3~7 오산 8~9 구리 10~11 남양주 12~15 광주 16~18 양평 19 하남 20~21 평택 22~26 용인 27~29 연천 30 과천 31 성남 32 화성 33~36

중국어(Chinese) 中文 9, 13, 17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6, 30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11, 14, 17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6, 9, 13 영어(English) 4, 11, 34 몽골어(Mongolian) Монгол хэл 21, 23, 28

정책 Policy 2 생활정보 Information 3, 15, 26 나의 학습 My Study 8, 22 외국인주민 6, 11, 17, 23 보건 Health 19, 25 여가 Leisure 9, 14, 21, 30 행사 Event 27, 29 육아 Child Care 1, 13, 28, 34 인권 2 출입국 Immigration 4, 5 교육 Education 15, 33 국제교류 29 산업재해 17 이주배경청소년 7, 20, 35 1인가구 36 도서관 Library 10 복지 Welfare 31, 32 주거 Residence 32



## 경기도, 젠더폭력 피해자 '주거 안정에서 일상회복까지' 통합 지원

34개소 주거시설 마련, 퇴소 후 자립지원금 및 법률·심리상담·의료 서비스 등 연계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사진)는 가정 폭력, 성폭력,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 폭력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장·단기 주거지원부터 퇴소 후 연계서비스까지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안전숙소 8곳, 긴급주거 지원 6곳, 임대주택 주거지원 4곳,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2곳,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곳 등 총 34곳의 장·단기 임시숙소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숙소는 112신고 후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5일간 임시 거주지를 제공한다. 긴급주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

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최대 30일, 3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며, 심의 절차를 거쳐 모두 1회 연장 가능하다. 긴급주거 지원은 최대 15명까지,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최대 13명까지 수용가능하다. 현재까지 신청자는 모두 입소한 상태이다.

이밖에 경기도형 긴급 안전지원으로, 주거지원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숙박비·이사비, 자동차 번호 변경, CCTV 설치 및 보안물품 등을 지원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적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애인 피해자나 어린 자녀가 있는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병원 치료, 경찰 조사·재판 출석 지원과 같은 긴급 돌봄도 제공한다.

단기적 주거지원이 끝났는데도 거주할 공간을 찾지 못한 피해자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연계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단기 6개월 이내(3개월 범위 내 2차례 연장 가능), 장기 최대 2년 이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원칙 1년 이내(1년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숙식 제공, 심리상담 및 치료, 질병 의료지원, 수사·재판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호시설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가 지역 제한 없이 입소할 수 있다.

경기도는 단순한 주거지원에 그치지 않고, 퇴소 후 지속가능한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연계서비스도 지원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입소기간 4개월 이상,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게 인당 500만 원(동반아동은 250만 원)의 퇴소자립지원금 및 직업훈련비, 학원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가 6개월 이후 퇴소할 경우 인당 1회 2천만 원의 퇴소자립지원금과 50만 원의 퇴소자립지원수당을 60개월에 걸쳐 지급한다.

또한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에서는 한국여성변호사협회, 한국토지주

택공사(LH), SK윌더스 등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법률구조·의료비 지원·심리치유 프로그램·통역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주거시설 퇴소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기적 모니터링과 전문상담 또한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피해자의 출퇴근·외출 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경찰청 협의와 전문가 심의 위원회를 거쳐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김진호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신변 안전을 위해 임시숙소 운영, 퇴소자 자립지원, 민간경호 시범사업 등 단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거자립·안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 유호준 의원, “노동부,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상고 취소해야”



지난 19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항소 3-2부 재판부가 2020년 12월 20일 한파 속 기숙사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행의 유족에게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기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노동부(장관 김영훈)

가 상고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노동부의 상고 결정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은 “경기도지사로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성의 뜻을 표명하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지속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해 차별이 없어야 함을 강조해 온 것을 거론하며 “이주노동자의 차별 없는 권익 보장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노동부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노동부의 상고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해당 사건의 2심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된 이후인 지난 9월 28일 이주노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정이고,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이다”라며 국적과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후,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을 주관하는 주무 부처인 노동부의 장관으로 “이재명 정부는 외국인노동자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살피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故 속행 씨 사건의 상고 결정으로 인해 장관과 정부의 의지가 왜곡되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이주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하는 목적으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 정부가 ‘고용허가서’를 발급해주는 현행 고용허가제를 거론하며 “건강하던 20대 여성노동

자가 영하18도의 날씨에 숙소로 제공된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했음에도 국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대체 고용허가제가 말하는 체계적인 ‘관리’란 무엇인가”라며 정부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를 내줬다면 응당 관리책임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노동부가 상고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故 속행 씨의 죽음은 영하 18도의 혹한의 추위 속 비닐하우스라는 주거 환경 때문이었고,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라며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향후 재발을 위해 지자체에 일부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송하성 기자





## 희망의 순례, 하나된 소리 하나된 마음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음악축제 참여해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지난 09월 21일 수원교구 이주사목위원회가 주관한 다문화 음악축제 ‘희망의 순례: 하나된 소리, 하나된 마음’에 참여했다.

이번 축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웃들이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하나 되는 시간을 만들기위해 기획됐다. 센터 동아리인 가야금 동아리 ‘가락’과 라틴댄스 동아리 ‘춤 클라우드’가 무대에 올라 각각의 매력을 선보였다. 가야금 동아리는 전통 선율 속에 한국적 멋을 담아내며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고, 라틴댄스 동아리

는 경쾌한 리듬과 열정적인 안무로 현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한 관객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공연을 보니 우리 지역사회가 더 풍요롭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축제에 참여한 동아리 회원은 “무대에 서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문화 이웃이 서로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 임신 출산 육아의 건강한 가치관 확립

### 수원시보건소, 제20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캠페인 운영

수원시보건소는 제20회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9월 26일부터 4개 구 주요 거점에서 기념행사와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캠페인은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임산부의 날은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임산부의 권익 보호와 배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됐다.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캠페인이다.

팔달구보건소는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수원화성박물관 부설주차장에서 ‘임산부 배려 및 모유 수유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영통구보건소는 10월 1일 영통역 일원에서 기념 캠페인을 열어 시민들에게 임산부 배

려 문화를 알리고 홍보 물품을 지원했다. 장안구보건소는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모자보건실과 온라인 플랫폼 ‘새빛톡톡’을 통해 임신·출산·육아 관련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정답을 맞힌 시민 중 일부를 추첨해 기념품을 증정한다. 권선구보건소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모자보건실에서 임산부의 날 슬로건을 전시하고 포토존을 운영한다. 또 기념사진 촬영, 태아에게 보내는 편지 쓰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각 구 보건소에서 임산부 배려의 중요성과 모유 수유의 긍정적 효과를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경희대, 다문화 아동 위한 멘토링 공동운영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한국어학과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습 지원과 정서적 성장을 돕기 위해 공동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6학년 다문화가정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 대학생 10명이 멘토로 참여한다. 아동들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교과 학습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멘토와의 교류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나누게 된다.

특히, 대학생 멘토들은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도와 함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단순한 공부 지원을 넘어 아동들의 자존감 향상과 건강한 또래 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 관계자는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학업은 물론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아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 수원특례시, 시내·마을·광역 버스 요금 인상...10월 25일부터 적용

수원특례시는 물가 상승과 운송원가 증가,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한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10월 25일부터 시내·마을·광역버스 등의 요금을 인상한다.

이번 요금 인상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지난 8~9월 각각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한 버스 요금 조정안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다.

교통카드 기준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은 성인 1450원→1650원, 청소년 1010원→1160원, 어린이 730원→830원 ▲시내좌석형 버스는 성인 2450원→2650원, 청소년 1820원→1860원, 어린이 1230원→1330원 ▲직행좌석형과 광역급행형(M) 버스는 성인 2800원→3200원, 청소년 1960원→2300원, 어린이 1400원→1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조정된 요금은 10월 25일 첫차부터 적용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이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 수원 추계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해요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2025년 추계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 강아지를 키우는 다문화가족도 광견병 예방접종에 참여하면 좋겠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등록된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접종 후 1년이 지나야 한다.

예방접종은 선착순 3375두에 한해 지정 동물병원 67개소에서 할 수 있다. 수원시가 백신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반려견 소유주는 접종비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정 동물병원 67개소는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광견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가축 질병"이라며 "예방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내외국인 공감소통사업 '제2회 골때리는 남자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양해규)는 지난 9월 27일 수원노총스포츠파크에서 이주 근로자와 선주민이 함께하는 공감소통사업 '제2회 골때리는 남자들' 풋살 경기를 진행했다.

올해는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캄보디아, 네팔 등 총 6개국의 선수와 응원단 약 60여 명이 참여해 국적을 넘어선 열정과 환호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체육 활동을 넘어, 풋살을 통해 이주민과 선주민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우정을 나누기 위

해 마련됐다. 축구공을 매개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어울려 땀을 흘리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 우승의 영광은 캄보디아 팀에게 돌아갔다.

경기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문화를 소개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 선수들은 "승패를 떠나 함께 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 "풋살을 통해 국적을 넘어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진솔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양해규 센터장은 "이번 풋살 경기는 선주민과 이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스포츠를 통해 국적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소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다문화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미래를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지은 기자

# Crackdown on unregistered foreigners operating an illegal vehicles that threaten public safety...The Ministry of Justice has arrested 4,617 illegal residents

〈Case 1〉 The Seoul Immigration Office set up an office in Ansan City and arrested a foreigner who recruited foreign women residing in Korea through SNS advertisements and supplied them as assistants at karaoke bar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or arranged prostitution.

〈Case 2〉 The Yangju Immigration Office conducted a crackdown on foreigners working illegally in a foreign accommodation in Paju City provided by a human resources agency after receiving reports from residents that they were making noise and shouting at night. The crackdown resulted in the arrest of 42 illegally employed foreigners.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at it conducted a month-long crackdown on illegal aliens from August 12 to September 12, arresting and forcibly deporting a total of 4,617 individuals. The foreigners arrested this time are those who are encroaching on ordinary citizens' jobs or threatening public safety.

In particular, many foreigners driving illegal vehicles have been cracked down on, putting both Koreans and foreigners at risk. Foreigners driving illegal vehicles are at risk for traffic violations, unpaid fines, failure to undergo vehicle inspections, and failure to subscribe to mandatory insurance. In such cases, no one is entitled to compensation in the event of a traffic accident.

The Ministry of Justice has cracked down on unlicensed and illegal vehicle drivers, arresting 38 illegal drivers and six illegal vehicles.

Additionally, during this period of concentrated crackdowns, we focused on cracking down on illegal employment brokerage through courier services, illegal delivery services (riders), construction, employment agencies, and social media to protect the jobs of ordinary citizens. As a result, we caught 32 illegal foreign workers in the courier and delivery sectors and 136 in the construction sector.

They also conducted intensive crackdowns on foreign-only clubs,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and motels, which are high-risk locations for foreign crime, resulting in the arrest of 776 individuals. We also arrested 3,635 foreigners in manufacturing facilities.

A total of 969 employers who illegally hired foreigners and 22 illegal employment and entry brokers were also apprehended and punished according to the law.

However, just as the recent scenes of Koreans being detained by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in the United States shocked many people, I hope that more attention will be paid to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undocumented foreigners residing in the country.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PapayaStory



정책 한눈에 보기

## 정주·취업·교육 3박자 갖춘 외국인 청소년 제도 개선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

법무부는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취업·정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하거나 국내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더불어 2025년 3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3년 연장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두 제도가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을 위한 정주 방안

#### ✓ 제도 도입 배경은?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인 특정활동(E-7) 등 취업 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하거나 유학(D-2)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이나 정주가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2025년 4월 1일부터 국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가요?

- ①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
- ②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 체류
- ③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체류 허용(다만,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부여)  
※ 인구감소(관심) 지역에서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 ✓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국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2021년 4월 19일 처음 시행되었다. 최초 시행시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였으나, 2022년 2월 1일 이후 국내 체류 기간 요건을 6년 또는 7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약 3,000여 명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한 이 제도가 2025년 3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법무부는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 개선하여 제도를 3년 연장하였다.

#### ✓ 무엇이 바뀌나요?

- ①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 부여시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체류자격(G-1)을 동시에 부여
- ② 해당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통한 사회통합 교육에 참여하는 조건 부과
- ③ 국내에서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KIS+story

## A Brighter Future for Foreign Adolescents who Call Korea Home Creating Smoother Pathways to Employment and Settlement and Ensuring Educational Access

The Ministry of Justice is pursuing two key initiatives to help foreign adolescents navigate life in Korea: expanding its initiative for an additional three years to uphold their educational rights and establishing smoother pathways to employment and long-term settlement. The Ministry of Justice has announced a new measure to support foreign high school graduates who spent most of their formative years in Korea and chose not to pursue a university education, helping them transition more smoothly into employment and long-term settlement. The initiative allows foreign adolescents, including those from immigrant backgrounds, to either switch to an employment visa or continue residing in Korea with their family members—even if they choose not to pursue a university education. The Ministry also decided to extend the existing initiative for an additional three years, until March 31, 2028. This program aims to grant legal visa status to foreign children who have resided in Korea long-term, ensuring their access to education. These two initiatives aim to lay the foundation for helping foreign adolescents grow with a sense of identity as members of Korean society. They are also expected to promote social integration in a way that resonates with the public.

### Creating Smoother Pathways to Employment and Long-Term Settlement for Foreign Adolescents Raised in Korea

#### ✓ What is the background of the initiative?

Under the existing system, foreign adolescents who reached adulthood were required to either complete a bachelor's degree or have at least five years of work experience to qualify for an E-7 (special occupation) visa. Even if they spent most of their lives in Korea and became adults here, they were still required to either pursue a university education or complete an academic course under a D-2(International students) visa in order to work and settle in the country. On April 1, 2025, the Ministry unveiled a revised initiative allowing foreign adolescents who were raised in Korea and completed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the country to continue residing here.

#### ✓ Who is eligible?

- ① A foreign national aged 18 to 24 as of the date of application
- ② A foreign national who has resided in Korea for at least 7 years before the age of 18
- ③ A foreign national who has completed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Korea  
Applicants who meet all of the above requirements are eligible to stay under D-10(Job-Seeker) or E-7-Y (Employment) visas. Those who have not completed only one of the three required education levels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 may still be eligible for the same visas if they successfully complete Level 5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 Foreign nationals who have resided for at least four years in designated depopulation regions or areas of concern for depopulation under the D-10 (Job-Seeker) or E-7-Y (Employment) visas are eligible to apply for the F-2-R (Region-Specific Foreign Talent) visa, which supports long-term settlement in those regions.

### Ensuring Educational Access for Foreign Children Residing Long-term in Korea

#### ✓ What is the purpose of the initiative?

The initiative was first introduced on April 19, 2021, to expand educational access for foreign children attending school in Korea without legal residency status. Initially, the program targeted children who had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15 years since birth, granting them eligibility for legal status. On February 1, 2022, the residency requirement was eased to include those who had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six to seven years, significantly broadening the program's reach. As a result, over 3,000 children have benefited from the initiative. Originally set to end on March 31, 2025, the Ministry reviewed challenges encountered during implementation and gathered feedback from the field. Based on this assessment, it decided to improve and extend the program for an additional three years.

#### ✓ What are the changes?

- ① When children who meet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are granted residence status, their underage siblings will also be granted a G-1 visa.
- ② Parents of eligible children are now required to participate in social integration education. This new requirement is intended to ensure that parents continue to provide care and educational support for their children.
- ③ Parents who have failed to care for or protect their children while living in Korea will not be eligible under the revised initiative.

정책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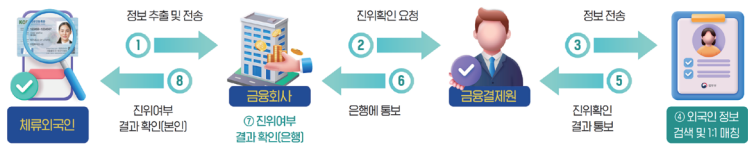
법무부 × 금융결제원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

등록외국인도 제2금융권에서 간편하고 쉽게 금융거래 가능!

법무부는 금융회사 창구·모바일 앱 등에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려는 외국인을 위해, 금융회사가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와 사진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대조해 진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의 적용 대상을 제2금융권(비은행권)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등록외국인은 비은행권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신분증 진위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업무 흐름도



### 대상 신분증(외국인 신분증 3종)



### 이용 수단

각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웹(비대면),  
각 영업 지점(대면)

###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

현재 총 20개 금융기관(제1금융권 13개, 제2금융권 7개)에서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 2025년 6월 이후부터 제2금융권 내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                       |                                                                         |
|-----------------------|-------------------------------------------------------------------------|
| 10개<br>대면·비대면 적용      |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카드,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
| 4개<br>비대면(모바일 앱/웹) 적용 | toss bank, 하나은행, JB우리캐피탈, 웰컴디지털뱅크                                       |
| 6개<br>대면(영업점) 적용      | NH농협은행, 신한협은행, 수협,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M&S미리금고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바로가기  
www.immigration.go.kr



하이코리아 (Hi Korea) 바로가기  
www.hikore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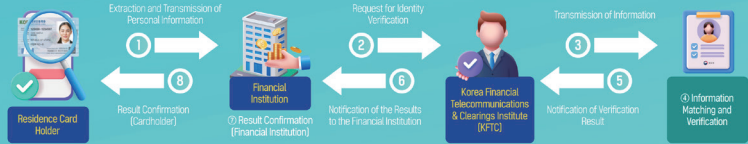
KIS+story

## Ministry of Justice × KFTC Foreign Registration Card Verification Service Expanded to the Non-Banking Sector

Easy and Convenient Financial Services in the Non-Banking Sector Are Now Accessible to Registered Foreign Resident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expanded the Foreign Registration Card Verification Service to include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allowing registered foreign nationals to verify their identity at service counters and through mobile apps. The service checks personal information and facial images from Residence Cards—including Permanent Resident and Overseas Korean Residence Cards—against the Ministry of Justice's database and provides real-time verification results. With this expansion, registered foreign residents can now complete identity verification at non-bank institutions using the same process available at banks.

### Operational Flowchart



### Acceptable Forms of Identification



### Participating Financial Institutions

20 financial institutions (13 banking and 7 non-banking) currently provide the Residence Card Verification Service.

|                                                     |                                                                                                                                                                  |
|-----------------------------------------------------|------------------------------------------------------------------------------------------------------------------------------------------------------------------|
| 10Institutions<br>In-person & Online                | Shinhan Bank, Woori Bank, KB Kookmin Bank, M Bank, BNK Busan Bank, BNK Gyeongnam Bank, Jeonbuk Bank, Kwangju Bank, IBK Industrial Bank of Korea, KB Kookmin Card |
| 4Institutions<br>Online<br>(Mobile App/Web Only)    | Toss Bank, Hana Bank, JB Woori Capital, Welcome Digital Bank                                                                                                     |
| 6Institutions<br>In-person<br>(Branch Offices Only) | NH Nonhyup Bank, SH Suihyup Bank, Suhyup, Mirae Asset Securities, Hana Securities, MG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

### Means of Access

Mobile apps/web services provided by each financial institution (non-face-to-face)  
Branch offices of each financial institution (face-to-face)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www.immigration.go.kr



Hi Korea (Hi Korea)  
www.hikorea.go.kr





## “Trung tâm Tổng đài Hỗ trợ Người nước ngoài 1345” – Hỗ trợ toàn diện cho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bị xâm phạm nhân quyền!

Bộ Tư pháp cho biết khi xảy ra các vụ việc xâm phạm nhân quyền của lao động nước ngoài, họ sẽ cung cấp dịch vụ hỗ trợ nạn nhân “원스톱” thông qua “Trung tâm Hướng dẫn Tổng hợp cho Người nước ngoài 1345”.

Biện pháp lần này được đưa ra nhằm nhanh chóng trợ giúp khi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phải chịu những vi phạm nhân quyền nghiêm trọng và thực hiện các biện pháp để ngăn chặn những sự việc tương tự xảy ra lần nữa.

Nếu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bị vi phạm nhân quyền gọi điện đến “Trung tâm Hướng dẫn tổng hợp cho người nước ngoài 1345” và sự việc được xác nhận, họ có thể được kết nối đến ‘법무부 원스톱솔루션센터’ hoặc “Trung tâm Tư vấn Lao động cho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của Bộ Lao động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tùy theo loại hình thiệt hại, để nhận hỗ trợ khắc phục thiệt hại phù hợp.

‘1345 Trung tâm Hướng dẫn Tổng hợp cho Người nước ngoài’ là kênh hỗ trợ đa ngôn ngữ cung cấp thông tin sinh hoạt cần thiết và tư vấn các thủ tục liên quan đến xuất nhập cảnh, lưu trú cho người nước ngoài, với 20 ngôn ngữ bao gồm tiếng Anh, Trung,

Nhật và Việt.

**Trường hợp 1)** Người lao động mang quốc tịch Trung Quốc bị bạo hành đã tư vấn tại “Trung tâm Hướng dẫn Tổng hợp Người nước ngoài 1345”, được kết nối với ‘법무부 원스톱솔루션센터’ để nhận tư vấn chuyên môn liên quan đến bạo hành, sau đó được kết nối với Tổ chức Hỗ trợ Pháp lý để nhận tư vấn pháp luật, hỗ trợ kiện tụng và chi phí điều trị.

**Trường hợp 2)** Người phụ nữ nước ngoài là nạn nhân của tội phạm tình dục kỹ thuật số cũng đã được tư vấn tại “Trung tâm Hướng dẫn Tổng hợp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1345” và được kết nối với ‘법무부 원스톱솔루션센터’ để hướng dẫn về tư vấn pháp lý và hỗ trợ điều trị.

Ngoài ra, Bộ Tư pháp cũng dự định cung cấp cho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thông tin về bảo vệ nhân quyền” dưới nhiều hình thức khác nhau, nhằm phòng ngừa các vi phạm nhân quyền có thể xảy ra tại nơi làm việc và đảm bảo họ được hỗ trợ kịp thời khi xảy ra vi phạm.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sẽ được hướng dẫn về bảo vệ nhân quyền và khắc phục thiệt hại bằng tối đa 20 ngôn ngữ trong quá trình thực hiện các thủ tục từ

xin visa, kiểm tra nhập cảnh, đăng ký cư trú đến gia hạn thời gian lưu trú.

Bên cạnh đó, chủ sử dụng lao động cũng sẽ được thông báo về thủ tục bảo vệ nhân quyền qua tin nhắn, và khi nộp đơn xin Giấy chứng nhận cấp visa, cơ quan sẽ kiểm tra xem tại nơi làm việc và chỗ ở của người lao động có bằng hướng dẫn quyền lợi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bằng nhiều ngôn ngữ hay không, để phản ánh vào quá trình xét duyệt visa.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Jeong Seong-ho cho biết: “Trước đây, ngay cả khi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bị xâm hại nhân quyền, họ thường không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đầy đủ do rào cản ngôn ngữ và khó tiếp cận các thủ tục khắc phục,” đồng thời nhấn mạnh, “Với biện pháp lần này,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có thể nhận được sự bảo vệ kịp thời và thực chất thông qua ‘Trung tâm Hướng dẫn Người nước ngoài 1345’.” Trong tương lai, chúng tôi sẽ nỗ lực hết sức để đảm bảo người cư trú nước ngoài được tôn trọng và làm việc an toàn tại Hàn Quốc.”

〈한글 기사 23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종합 지원!

มอบบริการแบบวันสต็อปตามประเภทของ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รวมถึงให้คำปรึกษาทางกฎหมายและการ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อีกด้วย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เปิดเผยว่า เมื่อเกิดกรณี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ต่อ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 จะให้บริ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ผู้เสียหายแบบวันสต็อปผ่าน “ศูนย์บริการข้อมูลครบวงจร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 1345”

มาตรการครั้งนี้จัดทำขึ้นเพื่อให้สามารถให้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ในกรณีที่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ถูก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อย่างร้ายแรง และเพื่อป้องกันไม่ให้เกิดกรณีลักษณะนี้เกิดขึ้นซ้ำอีก

ดังนั้น หาก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ถูก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โทรติดต่อไปยัง “ศูนย์บริการข้อมูลครบวงจร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 1345” และได้รับ การยืนยันข้อเท็จจริงเกี่ยวกับ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แล้ว ก็จะเชื่อมต่อไปยัง “ศูนย์วันสต็อปโซลูชันของ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หรือ “ศูนย์ให้คำปรึกษา ด้าน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ของ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จ้างงานและแรงงาน” ตามประเภทของ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 เพื่อรับ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ที่เหมาะสมกับแต่ละกรณี

“ศูนย์บริการข้อมูลครบวงจร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 1345” เป็นศูนย์ให้คำปรึกษาในหลายภาษา ที่ให้ข้อมูลด้านการใช้ชีวิตที่จำเป็นต่อการพำนัก ในเกาหลี รวมถึงให้คำปรึกษาเกี่ยวกับการ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การพำนัก โดยให้บริการทั้งหมด 20 ภาษา ซึ่งรวมถึงภาษาอังกฤษ, จีน, ญี่ปุ่น, เวียดนาม เป็นต้น

**กรณีที่ 1)** แรงงานสัญชาติจีนที่ตกเป็นเหยื่อการทำร้ายร่างกายได้ติดต่อขอรับคำปรึกษาผ่าน “ศูนย์บริการข้อมูลครบวงจร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 1345” จากนั้นได้รับการเชื่อมต่อไปยัง “ศูนย์วันสต็อปโซลูชันของ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เพื่อรับคำปรึกษาเฉพาะทางเกี่ยวกับเหตุทำร้ายร่างกาย และต่อมาได้รับการเชื่อมต่อไปยังสำนักงานกฎหมายเพื่อ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ประชาชน เพื่อรับบริการให้คำปรึกษาทางกฎหมาย การสนับสนุน ด้านคดีความ และค่าใช้จ่ายในการ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

**กรณีที่ 2)** หญิ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ตกเป็นเหยื่ออาชญากรรมทางเพศทางดิจิทัลได้ติดต่อขอรับคำปรึกษาผ่าน “ศูนย์บริการข้อมูลครบวงจร 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 1345” และได้รับการเชื่อมต่อไปยัง “ศูนย์วันสต็อปโซลูชันของ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เพื่อรับคำปรึกษาทางกฎหมาย และคำแนะนำเกี่ยวกั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ด้านการ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

นอกจากนี้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ยังมีแผนที่จะเผยแพร่ “ข้อมูลการคุ้มครองสิทธิมนุษยชน” แก่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ในรูปแบบต่าง ๆ เพื่อป้องกัน 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ที่อาจเกิดขึ้นใน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 และเพื่อให้สามารถได้รับ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ได้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หากเกิดการละเมิดขึ้น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จะได้รับข้อมูลเกี่ยวกับ “การคุ้มครองสิทธิมนุษยชนและ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ผู้เสียหาย” สูงสุดถึง 20

ภาษา ในทุกขั้นตอน ตั้งแต่การยื่นขอวีซ่า, การ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ไปจนถึงการต่อระยะเวลากการพำนัก

นอกจากนี้ จะมีการส่งข้อความแจ้งข้อมูลเกี่ยวกับขั้นตอนการคุ้มครองสิทธิมนุษยชนให้แก่เจ้าของกิจการที่จ้า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อีกด้วย และในขั้นตอนการขอหนังสือรับรองการออกวีซ่า ทางกรมจะตรวจสอบว่ามีการติดประกาศ “เอกสารแนะนำการคุ้มครองสิทธิของแรงงาน ต่างชาติ” หลายภาษาที่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หรือที่พักหรือไม่ เพื่อให้ประกอบการพิจารณาออกวีซ่าอีกด้วย

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จอง ซองโฮ กล่าวว่า “ที่ผ่านมา แม้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จะถูก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 แต่ปัญหาอุปสรรคด้าน ภาษาและความยากลำบากในการเข้าถึงขั้นตอน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 ทำให้ไม่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อย่างเต็มที่” และเสริมว่า “ด้วยมาตรการครั้งนี้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จะสามารถได้รับการคุ้มครอง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และเป็นรูปธรรมผ่าน “ศูนย์บริการข้อมูลครบวงจร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 1345” เรา จะพยายามอย่างเต็มที่เพื่อให้ผู้อยู่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ได้รับความเคารพและสามารถทำงานในเกาหลีได้อย่างปลอดภัยต่อไป”

〈한글 기사 23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이주배경청소년, 세계문화체험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전통문화 체험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9월 30일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와 화성행궁 일대에서 이주배경청소년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문화체험 ‘연(緣)으로 이어지는 한가위 피크닉’을 진행했다.

이날 청소년들은 센터에서 ▲추석 유래와 속담 ▲전통놀이 ▲대표 음식 소개 등을 배우고, 송편 빚기 등 전통음식 만들기에 참여했다. 이어 화성행궁 일대로 이동해 돛자리를 펴고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누며 피크닉을 즐겼다.

화성행궁 일원에서는 연날리기, 윷놀이·투호·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체험했

다. 청소년들은 놀이를 함께 즐기며 한국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유대감을 쌓았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친구들과 음식을 나누며 더 친해질 수 있었다”며 “연날리기를 처음 해봤는데 높이 올라가 신기하고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추석 프로그램은 자연 속에서 쉼과 여유를 즐기며 어울릴 수 있는 피크닉으로 준비했다”며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공동체 유대감을 키우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 이주민 가정에 추석맞이 사랑나눔

한국수출입은행, 취약 외국인주민에 후원물품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 9월 30일(화), 한국수출입은행 경기지역본부 지정기탁사업의 후원을 받아 추석 명절을 맞아 이주민 가정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2,000만원의 후원금을 바탕으로 총 101가정에 생필품을 지원했다.

이번 나눔에서는 백미 20kg, 육류(한우 또는 한돈 중 택1), 계절물품(선풍기, 전기요, 이불 중 택1) 등 3가지 품목을 마련하여 각 가정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물품은 택배를 통해 전달되어, 직접 수령의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 가정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는 한국수출입은행 경기지역본부 최정훈 본부장, 최민이 부본부장, 한반도 과장, 손민기 대리가 참석했으며, 후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 이주민지원팀도 함께 자리했다.

양해규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장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소중한 후원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이번 추석 나눔은 각 가정의 상황을 세심히 살펴보고 어려움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물가가 치솟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웃사랑을 함께 실천하고자 협력해준 하나로축산(팔달구 지동)과 농협수원유통센터(권선구 구운동)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추석나눔 선물을 받은 대상자 중에는 “살면서 한우를 처음으로 맛볼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하기도 하고, “얇은 이불 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받은 선물로 따뜻하게 지낼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이 마음을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전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 체육인에게 기회소득 지급한다

1인당 150만원 지급...11월 28일까지 신청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체육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2025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11~12월 중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공고일인 2025년 10월 1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체육인이다.

개인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중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19세 이상 체육인이 신청할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2025년 제12회 수원 한마음 걷기 축제

12th Walk Together Festival in Suwon

2025. 10. 25.(sat) 09:00~13:00 | 수원화성 행궁광장

Suwon Hwasung Haenggung Square

| 구분            | 시간            | 내용            |                            |                                 |
|---------------|---------------|---------------|----------------------------|---------------------------------|
| 1부            | 09:30 ~ 09:40 | 10'           | 오프닝 공연 (만소리)               |                                 |
|               | 09:40 ~ 09:45 | 05'           | 개회 선언 및 내외빈 소개             |                                 |
|               | 09:45 ~ 10:00 | 15'           | 환영사 및 축사                   |                                 |
| 2부            | 10:00 ~ 11:30 | 90'           | 한마음 걷기 (수원화성 성곽길)          |                                 |
|               | 11:40 ~ 12:40 | 60'           | 축하공연 (고전무용, 오매라, 뮤지컬, 합창단) |                                 |
| 3부            | 12:40 ~ 13:00 | 20'           | 경품추첨                       |                                 |
|               | 13:00 ~       |               | 배회 선언                      |                                 |
| 상시프로그램 (부대행사) |               | 09:00 ~ 13:00 | 240'                       | 정부합동 고충상담 / 건강상담 및 검진 / 체험 프로그램 |

행사 경품

1등... 삼성 TV | 2등... 삼성 냉장고 | 3등... 무선청소기 | 4등... 광화오븐 | 5등... 믹서기

참여혜택

기념품 증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4시간 인정

주최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주관

수원특례시 SSIC 수원사회통합지원센터

주최

한국이민지원센터





그림으로 여는 내 마음 이야기  
오산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집단 표현예술치료

오산시가족센터는 지난 9월 30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집단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그림으로 여는 내 마음 이야기’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림을 통한 자기 표현과 정서 지원을 목표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화를 나누며 그동안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을 그림으로 드러내고 공유하면서 깊

은 공감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그림으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치유와 위로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통해 한국 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병희 오산시가족센터장은 “결혼이민자가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아 실현과 심리 지원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오산시가족센터 1인가구 ‘목표 달성을 위한 습관 관리 마스터’

오산시가족센터(센터장 이병희)는 지난 9월 24일 저녁 7시, 오산시가족센터 부속 프로그램실에서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목표달성을 위한 습관 관리 마스터하기」 프로그램을 많은 1인 가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도민 정책축제 ‘1인가구 공감주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산시 거주 19세~39세 청년 1인가구 참가자들은 ▲습관의 정의와 중요성 ▲성공 습관의 실제 사례 ▲작은 변화를 만드는 긍정적 습관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가능한 습관 관리법 등을 배우며 자기계발의 동기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혼자 생활하면서 자기 관리가 쉽지 않았는데, 실천 가능한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습관 전략을 배워서 도움이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병희 센터장은 “이번 교육은 청년 1인가구가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1인가구의 자립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 오산시가족센터<br>〈10월 프로그램 안내〉 |                      |                                      |                          |                  |                                                                                 |
|--------------------------|----------------------|--------------------------------------|--------------------------|------------------|---------------------------------------------------------------------------------|
| 사업 구분                    | 사업명                  | 일시                                   | 대상                       | 인원               | 내용                                                                              |
| 가족 생활                    | 다문화가족자녀지원 (진로설계지원사업) | 4월~11월                               | 다문화, 외국인 및 난민가족자녀 아동·청소년 | 10명              | - 다중지능을 활용하여 흥미 적성을 탐구하는 진로동아리                                                  |
|                          | 상시                   |                                      |                          | 10명              | - 1:1로 진로, 학업 등 생활 전반에서 느낄 수 있는 고민 상담                                           |
| 가족 생활                    |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 상시                                   | 오산시 관내 다문화 가족            | -                | - 신규결혼이민자 발굴 및 센터 등록<br>- 프로그램이용연계<br>-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적응에 필요한 생활 안내 지원 등           |
|                          | 가족상담                 | 상시                                   | 모든 시민                    | -                | - 개인 및 가족상담, 이혼전·후 상담<br>- 다문화가족 상담,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등                             |
| 가족 생활                    | 심리검사                 | 상시                                   | 모든 시민                    | -                | - 개인심리검사 (성격기질검사, 불안 우울검사, 그림검사 등)<br>- 가족심리검사 (가족관계검사, 부모자녀 양육태도검사)            |
|                          | 상담 사례회의              | -                                    | 상담원 및 실무자                | 11명              | - 동료슈퍼비전을 통한 사례 분석 및 문제 해결 방안 논의                                                |
| 가족 생활                    | 상담 슈퍼비전              | 9/23(화)                              | 상담원 및 실무자                | 11명              | - 상담 슈퍼비전<br>- 상담사례 지도 및 감독                                                     |
|                          | 사례관리                 | 상시                                   | 오산시 관내 취약·위기가족           | -                | - 가족사례관리<br>- 서비스 대상자 상담<br>- 서비스 연계 및 사업지원인력 파견<br>-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연계     |
| 지역 공동체                   | '너나들이-마음챙김' 자조모임     | 10/17 (금), 10/24 (금)                 | 오산시 관내 취약·위기가족           | 5명               | - '너나들이' 프로그램<br>- '마음챙김' 자조모임(정기모임)                                            |
|                          | 경기육아나눔터 공간이용         | 상시                                   | 초등 3학년 이하 자녀와 부모         | -                | - 경기육아나눔터 공간 이용 (월~금 10:00~17:00)                                               |
| 지역 공동체                   | 경기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        | 상시                                   | 초등 3학년 이하 자녀와 부모         | 2가정 이상 결성 시 활동가능 | - 학습, 놀이, 체험 등의 활동을 함께 하는 가족 품앗이 구성 및 활동(월 3회 이상 활동 필수)<br>월 3만원 이내 활동비 지원      |
|                          |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지원   | 매주 월 15:00~17:00<br>매주 금 15:00~17:00 | 결혼이민자                    | 7명<br>11명        | - 오해피 댄스동아리: K-POP 댄스를 배우며 친목을 도모하고 성취감도 느끼는 프로그램<br>- 하모니 브릿지: 결혼이민자들로 구성된 중창단 |

| 오산시가족센터<br>〈10월 프로그램 안내〉 |                    |                                        |                        |          |                                                                                               |
|--------------------------|--------------------|----------------------------------------|------------------------|----------|-----------------------------------------------------------------------------------------------|
| 사업 구분                    | 사업명                | 일시                                     | 대상                     | 인원       | 내용                                                                                            |
| 가족 생활                    | 학부모지원              | 9/16(화) 9/23(화)                        | 초등자녀를 둔 학부모            | 30명      | - 초등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한 문해력 교육                                                                     |
|                          | 아버지역할지원 (아빠가빛나는학교) | 10/29(수)                               | 관내 거주하는 아버지과 자녀        | 40명      | - 파파와 문화데이 (영화관람)<br>- 관내 거주 아버지와 자녀 40명                                                      |
| 가족 생활                    | 부부특성화 지원사업         | 3~10월                                  | 관내 거주하는 부부 단위의 스포츠 동아리 | 4팀 (32명) | - 부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부부동아리 운영                                                                      |
|                          | 다문화가족 관계향상지원       | 9월~11월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 50명      | - 생활안전교육, 인권교육                                                                                |
| 가족 생활                    |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 5월~10월                                 | 결혼이주여성                 | 12명      | - 요리를 매개로 관계를 맺고, 빛나는 '우리'가 되는 시간<br>- 매주 목 10시~12시 요리교실<br>- 매월 마지막 목 10~12시 자조모임<br>- 가족나들이 |
|                          | 중도입국자녀 한국 사회 적응지원  | 3~12월                                  | 9~24세 중도입국자녀           | 11명      | [중도입국자녀교실]<br>- 한국어교육<br>- 심리정서지원_집단미술                                                        |
| 가족 생활                    | 중도입국자녀 한국 사회 적응지원  | 4~12월                                  | 대호중학교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     | 12명      | [언어로 다가감]<br>- 찾아가는 한국어교육<br>- 심리정서지원_집단미술                                                    |
|                          | 중도입국자녀 온정나눔행사      | 6월~11월                                 | 중도입국 청소년               | 20명      | - 특식지원<br>- 문화체험(에버랜드, 오산시탐방)<br>- 교육물품 지원                                                    |
| 가족 생활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 9월~11월                                 | 결혼이민자                  | 반별 8~25명 | - 한국어 단계별 과정 교육 실시<br>- 동화로배우는 한국어, 중급 말하기·쓰기, 토픽 고급 듣기·말하기<br>- 취업 한국어, 자녀학습지도 한국어 등         |
|                          | 1인가구지원사업           | 10/21(화), 10/23(목), 10/28(화), 10/30(목) | 관내 중장년 1인가구            | 10명      | - 중장년 1인가구 식생활 개선 다이닝                                                                         |



## 언제는 '경기아이플러스카드(다자녀가정 우대카드)'로 나들이하세요

### 경기도, 발급기준 '18세 이하 2자녀 가정'으로 완화...다양한 혜택과 할인 제공해

경기도가 10월에 더 많은 내국인과 다문화가족이 '경기아이플러스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경기아이플러스카드는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농협, BC카드가 협력해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올해부터 막내 자녀 나이 기준을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한 가운데 6월 말 기준 1만2천여 장이 신규 발급됐어요.

주요 혜택으로는 ▲학원업종 및 병·의원 7% 할인 ▲GS주유소, 커피전문점, 백화점, 편의점 5% 할인 ▲경기도내 공영주차장 할인 ▲협력가맹점 현장할인 서비스 등이 있어요.

협력가맹점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스타디카페, 의원·병원, 의류, 태권도장, 마트 등 다양한 업종이 참여

중이에요. 10월부터는 '아쿠아플라넷 광고'가 협력가맹점으로 새롭게 참여했어요.

'아쿠아플라넷 광고'는 도심 속 바다에 살고 있는 210여종 30,000마리의 해양 및 육지 생물들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아쿠아리움이에요.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소지자는 현장에서 카드를 제시하면 대인 입장권 30% 할인(동반 4인까지)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다자녀 가정의 문화 나들이 비용을 많이 줄일 것으로 기대돼요.

이외에도 경기아이플러스카드는 한국민속촌, 서울랜드, 롯데월드, 에버랜드, 이월드 등 주요 테마파크에서 본인 자유이용권 50% 현장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요. 카드 발급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가까운 농협(농협카드 1644-4000)을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2자녀 이상 다문화가족도 망설이지 말고 농협에 카드를 신청하세요~

협력가맹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누리집(ggiplus.bccard.com)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경기도 가족정책과(gg4829@gg.go.kr)에 제출하면 돼요.

임용규 경기도 가족정책과장은 "저출생 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가족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언제라도 경기아이플러스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활용해 가족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중국어 하단, 베트남어 30면, 러시아어 14면, 태국어 하단, 몽골어 21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请随时利用“京畿iplus卡(多子女家庭优惠卡)”出游 경제적 혜택과 문화생활 지원

京畿道10月份进一步扩大“京畿iPlus卡”的使用范围,让更多本国居民和多文化家庭能够享受使用福利。《照片为京畿iplus卡网站截图》

京畿iPlus卡是由京畿道与农协、BC卡公司合作运营的项目,旨在为拥有两名及以上子女的多子女家庭提供多样的经济优惠与文化生活支援。

从今年开始,最小子女的年龄标准从15岁以下扩大到18岁以下,以6月末为基准,新发放了1万2千多张。

主要优惠有▲补习班及医院·诊所优惠7%▲GS加油站、咖啡店、百货商店、便利店优惠5%▲京畿道内公营停车场优惠▲合作加盟店现场优惠服务等。

合作加盟店正在持续扩大中,学习咖啡厅、诊所、医院、服装店、跆拳道场、超市等多种行业正在参与中。从10月份开始,“Aqua Planet光教”也新加入成为合作加盟店。

“Aqua Planet光教”是一座可以近距离观赏210多种、约3万只海洋及陆地生物的城市型水族馆。

京畿iplus卡持有者只要在现场出示卡,就可以以成人门票7折优惠(最多4人)的价格购买。多子女家庭的文化游玩成本有望大幅降低。

除此之外,京畿iplus卡还在韩国民俗村、首尔乐园、乐天世界、爱宝乐园、E-World等主要主题公园提供本人自由通票50%现场折扣等多种优惠。只要携带身份证和居民

登记簿副本到附近的农协 农协卡1644-4000)申请即可。2个子女以上的多文化家庭也不要犹豫,赶快前往农协办理吧!

希望加入合作加盟店的商家,可在京畿iPlus卡官方网站 ggiplus.bccard.com)下载申请表,填写后发送至京畿道家庭政策科邮箱 gg4829@gg.go.kr)。

京畿道家庭政策科长任勇奎(音)表示:“在低出生率时代,共同分担育儿家庭所面临的现实困难,并强化实质性的支持措施,是最为重要的”,希望大家随时都能利用京畿iplus卡的多种优惠,和家人一起度过特别的时光。”

<한글 기사 상단>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ออกไปเที่ยวได้ทุกเมื่อด้วย “บัตรคยองกี I-Plus (บัตรสิทธิพิเศษสำ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ที่มีบุตรหลายคน)”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กำลังสนับสนุนให้คนในประเทศและครอบครัวพหุวัฒนธรรมสามารถใช้ “บัตรคยองกี I-Plus” ได้มากขึ้นในเดือนตุลาคมนี้

บัตรคยองกี I-Plus เป็นโครงการที่ดำเนินการร่วมกันระหว่าง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และนงฮยอมน, บัตร BC เพื่อมอบ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ทางเศรษฐกิจ และสนับสนุนกิจกรรม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ที่หลากหลายให้แก่ครอบครัวที่มีบุตร 2 คนขึ้นไป ตั้งแต่ปีนี้เป็นต้นไป เกณฑ์อายุของบุตรคนเล็กได้ขยายจากไม่เกิน 15 ปี เป็นไม่เกิน 18 ปี โดย ณ สิ้นเดือนมิถุนายน มีการออกบัตรใหม่กว่า 12,000 ใบ

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หลักของบัตร ได้แก่ ▲ ส่วนลด 7% สำหรับสถาบันกวดวิชาและคลินิก/โรงพยาบาล ▲ ส่วนลด 5% ที่ปั้มน้ำมัน GS, ร้านกาแฟ, ห้างสรรพสินค้า, และร้านสะดวกซื้อ ▲ ส่วนลดที่จอดรถสาธารณะใ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 และบริการส่วนลดพิเศษ ณ ร้านค้า ที่รวมรายการจำนวนร้านค้าที่ร่วมโครงการเพิ่มขึ้นอย่างต่อเนื่อง โดยมีหลากหลายประเภทเข้าร่วม เช่น คาเฟ่อ่านหนังสือ, คลินิก

และโรงพยาบาล, ร้านเสื้อผ้า, สถาบันเทควันโด, ซูเปอร์มาร์เก็ต เป็นต้น ตั้งแต่เดือนตุลาคมเป็นต้นไป “Aqua Planet กวางกโย” ก็ได้เข้าร่วมเป็นร้านค้า ร่วมโครงการใหม่เช่นกัน

“Aqua Planet กวางกโย” เป็นอควาเรียมที่สามารถชมสิ่งมีชีวิตใต้ท้องทะเลและบนบกกว่า 210 สายพันธุ์ รวมทั้งหมดกว่า 30,000 ชนิด ได้อย่างใกล้ชิดราวกับอยู่ในท้องทะเลกลางเมือง

ผู้ถือบัตรคยองกี I-Plus สามารถแสดงบัตรเพื่อรับส่วนลด 30% สำหรับบัตรเข้าชมผู้ใหญ่ (สำหรับผู้ติดตามสูงสุด 4 ท่าน) ได้ทันทีที่พนักงาน ซึ่งคาดว่าจะช่วยลดค่าใช้จ่ายใน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เชิงวัฒนธรรมของครอบครัวที่มีบุตรหลายคนได้อย่างมาก

นอกจากนี้ บัตรคยองกี I-Plus ยังมอบ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อื่นๆ อีกมากมาย เช่น ส่วนลด 50% สำหรับบัตรเข้าสวนสนุกแบบไม่จำกัดรอบ ทันทีที่พนักงาน ในสวนสนุกชั้นนำต่าง ๆ ได้แก่ หมู่บ้านพื้นเมืองเกาหลี่, โซลแลนด์, ล็อตเต้เวิลด์, เอ

เวอร์แลนด์, และอี-เวิลด์ เป็นต้น

สำหรับการออกบัตรสามารถทำได้โดยนำบัตรประชาชนและสำเนาทะเบียนบ้านไปยื่นที่นงฮยอมนสาขาใกล้บ้าน (สอบถามรายละเอียดบัตร นงฮยอมน โทร. 1644-4000) ครอบครัวพหุวัฒนธรรมที่มีบุตร 2 คนขึ้นไป ก็อย่าลืมนำบัตรไปสมัครบัตรที่นงฮยอมนได้เช่นกัน~

ธุรกิจที่ต้องการเข้าร่วมเป็นร้านค้าร่วมโครงการ สามารถดาวน์โหลดแบบฟอร์มจากเว็บไซต์บัตรคยองกี I-Plus (ggiplus.bccard.com) แล้วส่งไปยังฝ่ายนโยบายครอบครัว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gg4829@gg.go.kr)

อิม ยงกยู ผู้อำนวยการฝ่ายนโยบายครอบครัว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กล่าวว่า “ในยุคที่อัตราการเกิดต่ำ การแบ่งปันความยากลำบากที่แท้จริงของ ครอบครัวที่เลี้ยงลูกและการเสริมสร้างมาตรการสนับสนุนอย่างเป็นรูปธรรมถือว่าสำคัญที่สุด” และเผยว่า “หวังว่าทุกคนจะใช้ประโยชน์จาก 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หลากหลายของบัตรคยองกี I-Plus เพื่อใช้เวลาพิเศษกับครอบครัวได้ทุกเมื่อ” <한글 기사 상단>





## 맞춤 사업 추진과 높은 참여자 만족도! 구리시가족센터, 1인가구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구리시가족센터가 지난 9월 26일, 제7회 경기도민 정책추진에서 열린 「1인 가구 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 내 1인 가구 지원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자체별 정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리시는 지역 내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사업 추진과 참여자 만족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리시가족센터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립 예방, 사회적 관계망 형성, 건강·안전 강화 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세대 통합을 위한 ‘1인 가구 자유주제 제안 사업’ ▲중장년 관심 분야 동아리 지원 ‘중장년 수다 살롱’ ▲저속노화 식단을 활용한 ‘식생활 개선 식사’ ▲신체·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건강 돌봄 프로그램’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한 ‘금융 안전교육’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활꿀팁 바구니’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을 통해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정책 체감도를 끌어내고 있다.

구리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

하여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과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더 많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인가구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구리시도 앞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타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1인 가구 정책 모델 사례를 발굴·운영하고, 경기도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대상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수상은 구리시의 1인 가구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2025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해 주거, 건강·안전, 사회적 관계망, 고립 예방 등 4개 분야에서 총 27개 세부 사업을 17개 부서가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지역 내 1인가구의 생활 안정과 돌봄 환경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송하성 기자

## ‘구리에서 함께 키워요!’ 저출생 대책 추진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9월 30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우리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구리시!’ 조성을 위한 「2025년 하반기 저출생 대책 추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백경현 시장 주재로 국·소장과 부서장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2025년 저출생 대응 추진사업의 실적을 점검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 근본적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리시는 범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2025년 저출생 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구리시!’라는 비전 아래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등 3개 전략목표와 13개 추진 분야, 84개 세부 사업을 발굴해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

출이자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생아 출산 지원금 확대 △출생 축하 선물 「우리 아이 희망 통장」 지원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 △육아지원센터 및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다자녀가구 행복 더하기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모유 수유 전동 유착기 대여사업을 새롭게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백경현 시장은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들의 결혼, 일자리, 주거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핵심”이라며, “각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임신·출산·육아·다자녀 등 전 분야에서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리시는 앞으로도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시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맞춤형 저출생 지원 정책 발굴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 이제 가까운 도서관서 책 만나요 구리시 예약도서 상호대차서비스

구리시는 10월 13일부터 시민들의 도서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립도서관 예약 도서 상호대차 전환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민들은 예약한 도서를 대출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도서관이 소장된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호대차 전환을 신청하면 원하는 수령 도서관을 지정해 대출할 수 있어, 원거리 이동 부담이 줄어들고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약 도서 상호대차 전환은 대출 안내 메시지를 받은 이후 구리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 또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송하성 기자

## 구리시청소년문화의집, 참가자 ‘청소년 가족 사랑 캠프’ 모집

구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강종일) 구리시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가족 사랑 캠프’ 참가자 모집을 10월 1일(수)부터 10월 24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가족 사랑 캠프’는 청소년과 가족 간의 건강한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오는 11월 8일(토)부터 9일(일)까지 1박 2일간 경기도 양평군 미리내 캠핑장에서 열린다.

모집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포함한 3~4인 가족 총 12가정으로, 3인 가족 4팀과 4인 가족 8팀을 모집한다. 신청 가족 중 추첨을 통해 최종 참가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자연 속에서의 휴식과 체험을 중심으로 △카라반 캠핑 △숲 체험 △감정 나눔 활동 △가족 오락 등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경현 구리시청소년재단 이사장은 “이번 청소년 가족 사랑 캠프가 가족이 함께 웃고, 공감하며 더 건강한 관계로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청소년문화의집은 이번 가족 사랑 캠프를 비롯해 다양한 청소년·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www.guriyouth.go.kr/guriyouthcent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 The '1345 Foreigner Comprehensive Information Center' provides comprehensive support for foreign workers' human rights violations!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plans to provide one-stop victim support services through the "1345 Comprehensive Information Center for Foreigners" in the event of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foreign workers.

This measure is designed to provide prompt relief to foreign workers who suffe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o prevent similar incidents from recurring.

Accordingly, if a foreign worker who has suffered a human rights violation calls the '1345 Comprehensive Information Center for Foreigners' and the fact of a human rights violation is confirmed, he or she can receive customized support by connecting to the 'Ministry of Justice One-Stop Solution Center' o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Foreign Workers Counseling Center' depending on the type of damage.

The '1345 Foreigner Information Center' is a multilingual civil service information center that provides various living information necessary for foreigners staying in Korea and consultations on immigration and residence-related civil service issues in 20 languages, including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Vietnamese.

Case 1) A Chinese national worker who was assaulted consulted with the '1345 Comprehensive Information Center for Foreigners' and was connected to the 'Ministry of Justice One-Stop Solution Center' to receive professional counseling regarding the assault. She was then connected to the Legal Aid Corporation, where she received services such as legal counseling, litigation support, and medical expense support.

Case 2) A female foreign national who

was a victim of a digital sex crime also consulted with the '1345 Comprehensive Information Center for Foreigners' and was connected to the 'Ministry of Justice One-Stop Solution Center' to receive legal counseling and medical assistance.

In addition, the Ministry of Justice plans to provide foreign workers with "human rights protection information" in various ways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may occur in industrial settings and to enable them to quickly seek redress when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

We plan to provide guidance on "human rights protection and remedies" in up to 20 languages to foreign workers as they navigate procedures ranging from visa applications to immigration inspections, alien registration, and extensions of stay.

Furthermore, we plan to provide text

messages to employers hiring foreign workers with information on human rights protection procedures. When applying for a visa issuance certificate, we will verify the posting of a multilingual "Foreign Worker Rights Protection Guidelines" at workplaces and accommodations, which will be reflected in the visa review process.

Justice Minister Jeong Seong-ho stated, "Previously, foreign workers suffered human rights violations but were unable to receive proper support due to language barriers and difficulty accessing relief procedures. With this measure, foreign workers can now receive prompt and practical protection through the 1345 Immigration Information Center. We will continue to do our best to ensure that foreign residents can work safely and with respect in Korea." <한글 기사 23면>

PapayaStory

## «Единый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1345» — всесторонняя под держка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нарушений прав человека!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сообщило, что в случае нарушения прав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будет оказываться комплексная поддержка через «Единый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1345».

(Фото: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иллюстрация, не связана напрямую со статьей.)

Эта мера направлена на то, чтобы оперативно реагировать на случаи серьезных нарушений прав человека в отнош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и предотвратить их повторение.

Если иностранный работник, пострадавший от нарушения прав, звонит в «1345 Центр», и факт нарушения подтверждается, ему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дивидуальная помощь через «Центр комплексных решений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или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по вопросам иностранной рабочей силы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труда».

«Единый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1345»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нформацию, необходимую иностранцам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в Корее, а также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вопросам иммиграции и пребывания. Обслуживание доступно на 20 языках, включая английский, китайский, японский и вьетнамский.

Пример 1.

Китайский рабочий, ставший жертвой нападения, обратился в «Центр 1345», после чего был соединен с «Центром комплексных решений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Там он получил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ую консультацию по делу, а затем был направлен в Корейскую корпорацию юридической помощи, где ему оказали поддержку в виде юридической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мощи в подаче иска и оплаты медицинских расходов.

Пример 2.

Женщина-иностранка, ставшая жертвой цифрового сексуального прес

упления, также обратилась в «Центр 1345» и была направлена в «Центр комплексных решений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где получила юридическую и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Кроме т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планирует активно предоставлять иностранным работникам информацию о защите прав человека различными способами,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нарушения на рабочих местах и обеспечить оперативное реагирование в случае их возникновения.

На всех этапах — от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на визу и прохождения иммиграционного контроля до регистрации иностранца и продления срока пребывания — иностранцам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информация о защите прав человека и способах обращения за помощью на 20 языках.

Также работодателям, нанимающим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будут направляться SMS-уведомления о процеду

рах защиты прав, а при подаче заявления на выдачу визового разрешения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будет проверять наличие многоязычных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плакатов о защите прав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на рабочих местах и в общежитиях, учитывая это при визовом рассмотрении.

Министр юстиции Чон Сонхо заявил: «Ранее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тники, сталкивавшиеся с нарушением прав человека, не могли получить достаточную поддержку из-за языковых барьеров и трудностей с доступом к процедурам защиты».

Теперь, благодаря новой системе, они смогут быстро и реально получить помощь через Центр 1345.

Мы и дальше будем прилагать все усилия, чтобы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могли работать в Корее с уважением и безопасностью».

Иностранные SNS-журналисты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한글 기사 23면>





결혼이민자 꿈 향한 취업 로드맵 그려요



남양주시가족센터, 취업지원기관 탐방 및 하반기 취업역량 강화 특강 진행해

남양주시가족센터는 ‘2025년 결혼이민자 학업지원반 취업지원기관 탐방 및 하반기 취업역량 강화 특강’을 지난 9월 17일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남양주일자리센터서 진행됐다.

결혼이민자들의 진로 탐색과 구직 정보 수집 능력 향상, 취업 자신감 고취를 목표로 진행됐으며, 학업지원반 참여자 15명이 참여했다.

현장 탐방과 특강이 연계돼 실질적인 취업 준비 경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남양주일자리센터 탐

방으로 시작으로 ▲일자리센터의 역할과 주요 서비스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 ▲국가취업지원 제도 신청 자격 및 절차를 안내받았다. 또한 ▲시설 견학과 ▲직무환경 관찰 ▲취업 상담 체험을 통해 구직현장을 경험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인 ‘내일을 잡아라? 결혼이민자의 꿈을 향한 취업 로드맵’ 특강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됐다.

강의는 결혼이민자의 실질적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으며, ▲한국 노동시장과 산업 동향 이해 ▲취업 성공 사례 분석 ▲나의 강점 발견 ▲자기

소개서 작성 전략 ▲모의 면접 실습 등이 이뤄졌다.

남양주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들이 단순히 정보를 듣는 것을 넘어 실제 취업 지원기관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자신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동행복지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교육 내용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남양주시가족센터, '중국 추석(中秋) 문화탐방'...이중언어와 전통문화 배움 마련

남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주연)는 지난 9월 27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다문화가족 8가족, 총 23명이 참여한 ‘중국 추석(中秋)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이 부모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이중언어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중국 추석의 기원인 ‘항아분월(嫦娥奔月)’ 전설을 배우고, 전통음식인 월병과 계화차를 맛보며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했다. 또한 ‘中秋’ 한자를 직접 써 보고, 가족과 함께 추석 소원카드를 만들어 전시하면서

이중언어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 전통의상인 한복(漢服)과 마면치마(馬面裙)도 입어보며 전통복식의 아름다움을 느꼈고, 죽편공예 체험을 통해 ‘항아분월’을 주제로 한 추석 작품을 제작하며 문화적 의미를 되새겼다.

남양주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이 이중언어로 문화를 배우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자녀가 부모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자긍심 있게 받아들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이중언어교육과 문화체험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가족센터는 경북대학교가 남양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강점을 개발하여 글로벌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을 비롯해 가족 상담·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중국 추석(中秋) 문화탐방’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사회와의 관심과 나눔이 함께하는 뜻깊은 프로그램이 됐다.

김영의 기자





## 경기도 이주민만 누릴 수 있는 3가지 보육, 돌봄, 문화 혜택

### ขยายการสนับสนุนค่าเลี้ยงดูบุตร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ตั้งแต่เดือนตุลาคมเป็นต้นไป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จะเพิ่มอัตรา การสนับสนุนค่าเลี้ยงดูบุตร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ากเดิมเดือน ละ 100,000 วอน เป็น 150,000 วอน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ได้ให้การสนับสนุนค่าเลี้ยงดูบุตรเดือนละ 100,000 วอน แก่บุตร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อายุ 0-5 ปี ที่เข้า เรียนในศูนย์ดูแลเด็กภายใน จังหวัดมาตั้งแต่ปี 2023 เพื่อให้ เด็กทุกคนสามารถเติบโตใน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การดูแลที่ มั่นคงโดยปราศจากการเลือกปฏิบัติ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เนื่องจากค่าครองชีพและค่าเลี้ยงดูเด็กที่ เพิ่มขึ้นในภายหลัง จังหวัดจึงตัดสินใจรับเพิ่มอัตราการ สนับสนุนขึ้นอีกเดือนละ 50,000 วอน เพื่อบรรเทาภาระทาง เศรษฐกิจของครอบครัว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ผู้มีสิทธิ์และเงื่อนไขด้านคุณสมบัติในการ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 ยังคงเหมือนเดิม ผู้ที่มีสิทธิ์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คือทารกและ เด็กเล็ก 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อายุ 0~5 ปี) ที่ขึ้นทะเบียนและเข้า เรียนในศูนย์ดูแลเด็กภายในจังหวัด โดยผู้ปกครองและเด็ก ต้องอาศัยอยู่ใ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เป็นเวลา อย่างน้อย 90 วัน จึงจะ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ได้

ผู้ปกครองสามารถยื่นเอกสารที่เกี่ยวข้อง เช่น แบบฟอร์ม สมัครขอ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ค่าเลี้ยงดูบุตร และหนังสือรับรอง 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 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ที่ศูนย์ดูแลเด็กที่เข้าเรียน จาก นั้นเมื่อได้รับบัตรทุกمينแสงบกและใช้บัตรดังกล่าวในการ

ชำระค่าใช้จ่าย ก็จะได้รับ การสนับสนุน ค่าเลี้ยงดูบุตร

โก ฮยอนชุก ผู้อำนวยการกองนโยบายการดูแลเด็ก กล่าวว่า “การขยายการสนับสนุนค่าเลี้ยงดูบุตรในครั้งนี้มีเป้ าหมายเพื่อลดภาระการเลี้ยงดู ของผู้ปกคร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มี เด็กเล็ก และเพื่อมอบโอกาสในการได้รับการดูแลอย่างเท่า เทียม เราจะพยายามอย่างเต็มที่เพื่อขจัดช่องว่าง ในการ ดูแลเด็ก เพื่อให้เด็กทุกคนสามารถเติบโตได้อย่างแข็งแรง”

**สมัคร “รายได้โอกาสการดูแลเด็กในชุมชน”**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ประกาศเมื่อวันที่ 12 ว่า หลังจากเริ่มดำเนิน โครงการ “รายได้โอกาสการดูแลเด็ก” เพียง 1 ปี จำนวน ชุมชน ที่เข้าร่วม และจำนวนเด็กที่ได้รับการดูแลเพิ่มขึ้น มากกว่า 6 เท่า

“รายได้โอกาสการดูแลเด็ก” เป็นโครงการที่สนับสนุน กิจกรรมของชุมชนดูแลเด็กในหมู่บ้าน ซึ่งจัดตั้งโดยผู้อยู่อาศัยด้วยความสมัครใจ เพื่อเติมเต็มช่องว่างในการดูแลเด็ก ที่ระบบดูแลเด็กภาครัฐเข้าไม่ถึง โดยให้การยอมรับคุณค่า ทางสังคมของการดูแลเด็กของเพื่อนบ้านโดยไม่หวังผลตอบแทน และมอบรายได้โอกาสเพื่อส่งเสริมให้ผู้เข้าร่วม กิจกรรมมากขึ้น

จำนวนเงินสนับสนุน ตั้งแต่ปีนี้เป็นต้นไป จะจ่าย 200,000 วอนต่อเดือน, สำหรับการทำกิจกรรม 30 ชั่วโมงต่อเดือน และ 100,000 วอนต่อ เดือน สำหรับการทำกิจกรรมตั้งแต่ 15 ชั่วโมงขึ้นไปต่อเดือน

ครอบครัวพหุวัฒนธรรมก็สามารถจัดตั้งชุมชนดูแลเด็กร่วมกันได้ โดยแบ่งตามสัญชาติหรือรวมกลุ่มกับผู้ที่มีความสนใจ เหมือนกัน

ในปีแรกคือวันที่ 23 กันยายน 2024 เริ่มจ่ายรายได้โอกาส ให้กับชาวบ้าน 57 คน จาก 23 ชุมชนเป็นครั้งแรก และในเดือนกันยายนปีนี้ รายได้โอกาสถูกจ่ายให้กับชาวบ้าน 520 คน จาก 150 ชุมชน ใน 29 เมืองและเขต จำนวนเด็กที่ได้รับการดูแลก็เพิ่มขึ้นจาก 524 คน ในช่วงเวลาเดียวกันเป็น 3,403 คน การสมัครเข้าร่วมโครงการรายได้โอกาสสำหรับการดูแลเด็ก สามารถทำได้ทุกเดือนตั้งแต่วันที่ 1 ถึง 10 ผ่านเว็บไซต์คยองกีมินวอน24 (gg24.gg.go.kr)

**“Dodamso” เปิดให้บริการสำหรับงานแต่งงานขนาดเล็ก**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เปิดพื้นที่ “Dodamso” ซึ่งเป็นพื้นที่สื่อสาร กับประชาชนของจังหวัด ให้เป็นสถานที่สำหรับจัดงาน แต่งงานขนาดเล็ก พร้อมรับสมัครคู่บ่าวสาวคู่แรก อดีต ที่ทำการผู้ว่าราชการจังหวัด Dodamso ถูกปรับปรุงใหม่ให้ เป็นพื้นที่สื่อสารกับประชาชนในยุค การบริหารชุดที่ 8 โดยมีการจัดกิจกรรมหลากหลาย เช่น การแสดง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 และกิจกรรมเชิงทดลอง เพื่อพบปะกับประชาชน

งานแต่งงานขนาดเล็กจะจัดตลอดทั้งปี และมีเพียงวันละ หนึ่งครั้งในทุกวันเสาร์และอาทิตย์ งานพิธีจะจัดขึ้นที่สวน กลางแจ้ง แต่หากสภาพ อากาศไม่เอื้ออำนวยหรือในช่วงฤดูหนาว...〈중략, 한글 기사 1면〉 경기도국인SNS기자단

우리 둘만의 특별한 결혼식

도담소

어때요?

도민 소통공간 '도담소'를 결혼식 장소로 개방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 '도담소' 검색

전화 문의처 | 경기도청 총무과 (031-8008-3716)

신청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예비부부

이용 비용

시설 사용료 **실비 수준** (약 3만 원 내외)

장식·피로연 등의 예식비용은 **예비부부가 직접 부담**

예식 준비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자유롭게 준비

예식 진행 방식, 음악, 콘서트 등 **개성에 맞게 연출 가능**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68

도담소 공식계정

인스타그램 QR코드

外国子女保育费支援扩大

京畿道将从10月份开始把外国子女保育费支援标准从原来的每月10万韩元扩大到15万韩元。

京畿道为了让所有儿童在稳定的保育环境中成长，从2023年开始以在道内幼儿园上学的外国子女(0~5岁)为对象，每月支援10万韩元的保育费。

但是考虑到最近物价和保育费上涨等外国人家​​庭的经济负担，决定将支援上调5万韩元。支援对象和资格要求与以往相同。支援对象为就读于道内幼儿园的外籍婴幼儿(0~5岁)，监护人和婴幼儿在京畿道居住90天以上时都可以申请。

监护人向相关幼儿园提交保育费支援申请书和外国人登记事实证明书等相关文件，并领取国民幸福卡进行结算，就可以得到保育费支援。

保育政策科长高贤淑(音)表示:“将通过扩大保育费支援，减少外籍婴幼儿监护人的养育负担，提供无差别的保育机会，尽全力消除保育死角地带，使所有儿童都能健康成长。”

**“儿童照护机会收入”申请**

京畿道12日表示，实行“儿童照护机会收入”后，仅一年时间，参与共同体和照顾儿童人数都增加了6倍以上。

“儿童照护机会收入”是为了填补公共照顾无法触及的死角地带，支援居民自发组成的社区儿童照顾共同体活动的制度。制度上认可了无代价照顾邻居孩子的社会价

值，并通过发放机会收入鼓励参与。支付额从今年开始，每月30小时活动时支付20万韩元，每月15小时以上活动时支付10万韩元。多文化家庭也可以根据国籍或志同道合的群体自行组织儿童照护共同体。

在2024年首年，有23个社区、57名居民获得补助；而到今年9月，已有29个市郡、150个共同体、520名居民获得“机会收入”。同期接受照顾的儿童人数也从524人增加到了3403人。儿童照护机会收入参与申请每月1日至10日在京畿信访24网站(gg24. gg. go. kr )进行。

**“道谈所”小型婚礼空间开放**

京畿道将道民沟通空间“道谈所”开放为小型婚礼空间，并招募首对预备夫妇。过去曾是道知事官邸的道谈所被重新建成民选第8届道民沟通空间，举办各类文化演出与体验活动。

小型婚礼全年开放，每周六、周日每天举行一次。婚礼在室外庭院进行，天气不好或冬季大宴会厅被用作婚礼空间。

宾客规模在100名以内，使用费在3万韩元左右。婚礼进行和装饰、婚宴等可以由预备夫妇自由策划。只要是居住在京畿道的预备夫妇或在道内工作、上学的居民，都可以在道谈所举行小型婚礼。

申请可在婚礼前6个月开始，可通过京畿共享服务网站(share. gg. go. kr )或打电话(031-8008-3716)、访问等方式进行预约。批准结果和预约相关事项都会通过短信通知。〈한글 기사 1면〉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주민 추석맞이 즐거운 나들이 진행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영)는 지난 10월 8일 캐리비안베이에서 외국인주민 추석맞이 나들이를 진행했다. 연휴 기간 비가 많이 내렸지만 당일은 화창한 날씨 속에서 나들이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고향이 멀어 갈

수 없는 이주민들이 향수를 달래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는 “연휴 동안 갈 곳이 없는 약 80명 이주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며 “쉽지 않은 이주민 생활 속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외국인주민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자료 남양주외복

## 스무살 청년이 된 광릉숲축제, 3만 5천여명 방문

### 남양주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주민도 광릉숲에 방문해요

남양주시는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진접읍 광릉숲 일원에서 열린 ‘제20회 광릉숲축제’가 방문객 3만 5천여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광릉숲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자연 환경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광릉숲의 비공개 숲길이 축제 기간에만 개방돼 방문객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행사 첫날 열린 개막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 및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 내빈과 시민이 참석해 축제의 시작을 알렸으며,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광릉숲 축제, 20주년 시민과 함께’라는 피켓을 들고 스무살이 된 광릉숲축제를 함께 축하했다.

특히 올해 축제 20주년을 맞아 운영된 기념 팝업에서는, 그간 축제와 함께 해온

시민들의 추억을 담은 사진전과 크크낙 낙 이니셜 킴만들기, 360도 회전 기념 촬영, 축하메세지 벽면 컬러링 등이 운영돼 호응을 얻었다.

또한, 청명한 가을 날씨 가운데 다양한 수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플리마켓 ‘광릉숲마을장’과 광릉숲 안팎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 ‘광릉숲테이지’가 진행됐으며, 방문객들은 숲길 곳곳에 마련된 ‘광릉숲사진관’과 ‘광릉숲명취명’에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휴식을 취하고, 가족·지인과 함께 추억을 남기며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광릉숲의 진가를 음미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둘째 날에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많은 방문객이 축제 현장을 찾았다.

비가 내려 더욱 짙어진 숲의 풍경 속에서 시민들은 자연을 즐겼으며, 유한킴

벌리 주최 ‘숲속꿀잠대회’도 함께 진행돼 이색적인 풍경을 그려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광릉숲축제가 20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광릉숲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과 관계기관의 꾸준한 관심 덕분”이라며 “앞으로 광릉숲축제가 남양주를 넘어 전국적인 숲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릉숲은 우리나라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세계적으로도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다문화가족도 광릉숲에 꼭 한 번 방문해 보자. 아름답고 놀라운 풍광에 심취할 것이다.

이지은 기자



## 대학생 멘토 함께 하는 캠퍼스 탐방!

남양주시는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한상상 캠퍼스 투어’ 참가자를 모집한다.

‘무한상상 캠퍼스 투어’는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주요 대학 탐방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대학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대학생 멘토와 함께 캠퍼스를 둘러보며 대학 생활을 간접 체험하고, 진로 멘토링 시간을 통해 학업과 진로 설정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은 11월 2일 고려대학교, 8일 연세대학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남양주시 인재육성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10월 23일 오후 1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총 120명(초등학생 40명, 중학생 60명, 고등학생 20명)이며, 선발은 추첨제로 진행된다. 남양주시는 △10월 31일 ‘진로교육 박람회’ △11월 ‘하반기 진로 진학컨설팅’ △12월 ‘정시컨설팅’ 등 지속적인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031-590-1497 이지은 기자

## 중고등 학부모 대상 교육공동체 아카데미

남양주시는 1일 오남읍 소재 한 카페에서 진접·오남 지역 중·고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래교육공동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학부모 미래교육공동체 아카데미’는 권역별·학교급별로 순회하며 학부모 간 자녀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공유를 위한 자리다. 다섯 번째로 열린 이번 아카데미에는 진접·오남 지역 8개 중·고등학교 학부모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미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행사는 △시 교육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미래교육 특강: ‘2027 이후 대입의 변화와 양상(농어촌 전형 중심)’ △시장과 학부모의 자녀교육 공감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다문화가족도 이런 지역행사에 꼭 참여해 보자. 이지은 기자





## 아이돌봄지원 경기도지사 표창 받아 광주시가족센터, '경기도 아이돌봄 우수사례 공유회'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가 지난 9월 2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아이돌봄 우수사례 공유회'에서 아이돌봄지원 유공 분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돌봄 공백 해소와 아동 돌봄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아이돌봄 관리 및 서비스 운영에서의 모범적인 사례를 인정받은 결과다.

광주시가족센터는 한부모, 맞벌이 등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대상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체계적인 아이돌봄 관리와 지원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이수희 센터장은 "아이돌봄지원 사업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의 안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1:1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신청 및 문의는 광주시가족센터 (031-763-1253)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 광주시가족센터, 가족문화프로그램 '함께해서 행복한家' 성료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9월 27일 광주시가족센터 모두가족어울림에서 가족문화프로그램 '함께해서 행복한家'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함께해서 행복한家'는 광주시 관내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과 가족 친화적인 지역문화 조성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광주시어린이날 가족축제 체험부스, 도우아트, 글라스아트에 이어 이번에는 제철요리교실 '토마토편'이 진행됐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총 10가구, 22명의 가족이 참여해, 광주시의 지역특산물이자 제철 식재료인 토마토를 활용한 요리활동을 함께했다. 참여 가족들은 아빠-자녀, 엄마-자녀, 형제자매 등 각자의 구성요소를 이루어 토마토 타코와 쿠스쿠스 포케 만들기에 도전하며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 토요일에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요리교실에 참여할 수 있어 뜻깊었다"라며 "제철 식재료를 직접 만지고 맛보면서, 평소에는 낯설어하던 토마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수희 센터장은 "앞으로도 광주시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고 소통할 수 있는 가족문화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 "아빠와 함께한 별빛 여행" 가족의 추억이 되다...광주시가족센터, 아빠-자녀 체험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9월 26일 광주시평생학습관에서 아버지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50명을 대상으로 한 '아빠-자녀 체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시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춘 맞춤형 체험활동으로 진행됐다. 광주시가족센터는 매년 아버지와 자녀 간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광주시양성평등기금사업 지원을 받아 '아빠-자녀 관계 개선 프로그램'으로 확대 진행하고 있

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천체관측 ▲태양계 및 가을 별자리 체험 ▲별자리판 만들기 ▲달 포토존 체험 등이 운영됐다. 참여 가족들은 우주 체험활동을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갖고 뜻깊은 추억을 쌓았다.

한 참여 가족은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천체관측 체험을 아이와 함께할 수 있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수희 센터장은 "양육에 관심은 있지만 실제 방법이나 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들에게 이번 프로그램이 소통의 계기가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

도 건강한 가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빠,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은 6월 '치킨대학', 8월 '장촌체험마을'이 운영됐으며, 9월 '우주 체험활동'이 마지막으로 진행됐다.

한편, 광주시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 경기도,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사단법인 한국지역봉사회가 위탁 운영하는 가족복지 전문기관이다. 가족관계 증진, 가족 돌봄, 가족생활 교육, 지역 공동체 연계 프로그램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내 가족 친화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김영의 기자





#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травмы не должны повторяться...Если не принимать меры безопасности, убытки будут еще больше

С начала этого года участились несчастные случаи со смертельным исходом среди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и президент Ли Джэ Мён также поручил приложить все усилия,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травмы. Давайте посмотрим, что произошло. <Фото =Yonhap News>

Повторяющиеся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травмы у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на промышленных объектах в Корее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чие сосредоточены на опасных видах работ и привлекаются к труду без достаточных мер безопасности, вследствие чего происходят несчастные случаи со смертельным исходом или тяжёлыми травмами.

В июне на строительной площадке скоростной автомагистрали, где велись работы компанией «POSCO E&C», рабочий из Шри-Ланки погиб, попав в бурильную установку. В начале августа на другой стройке скоростной автомагистрали рабочий из Мьянмы в возрасте около 30 лет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получил удар током и впал в состояние остановки сердца.

В начале июля на стройке жилого комплекса в городе Куми, провинция Кёнбук, 20-летний рабочий из Вьетнама скончался, потеряв сознание от жары. В том же месяце на заводе в городе Кимпо,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 рабочий из Мьянмы умер после ночной смены, потеряв сознание.

Доля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травм растёт с каждым годом

Проблема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доля смертельных случаев среди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ежегодно увеличивается.

По данным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миссии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чие составляли 9,2% (85 человек)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погибших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в 2022 году, 10,4% (85 человек) — в 2023 году и 11,8% (47 человек) —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2024 года. Учитывая, что до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5%,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именно на иностранцев непропорционально возлагаются опасные работы.

Для решения этой проблемы необходимо создать систему охраны труда, адаптированную к особенностям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ключая языковую поддержку и повышение эффективности обучения по технике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обеспечение права отказа от опасной работы, и обеспечить её реальное применение на местах.

Министр занятости и труда Ким Ён Хун заявил: «Самое важное — создать среду, в которой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чие смогут трудиться без дискриминации»,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в отношении нарушений прав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будет применяться принцип нулевой терпимости».

Нарушения прав мигрантов не будут допущены

Проблема стала настолько серьёзной, что, не дождавшись улучшений, вмешался президент.

12 августа на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президент Ли Джэ Мён заявил: «Что может быть важнее человеческой жизни? Особенно, если рабочее место, куда человек пришёл зарабатывать на жизнь, превращается в место смерти, этого ни в коем случае нельзя допустить», подчеркнув: «Мы должны обязательно избавиться от повторяющихся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травм. Компании, которые не принимают надлежащие меры безопасности, должны строго наказываться». Президент также отметил: «Если ради заработка или экономии средств не были приняты меры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из-за этого кто-то погиб, то это равносильно убийству», добавив: «Если ради экономии не принимать меры безопасности, это должно оборачиваться ещё большими убытками».

Президент также коснулся вопросов нарушения прав человека, насилия и дискриминации в отношении иностранцев и социально уязвимых групп. Он сказал: «Корею можно назвать образцов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страной, которая ценит разнообразие и инклюзивность, однак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происходят не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этому события», и поручил: «Компетентные органы должны принять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меры, чтобы несправедливая дискриминация или нарушения прав человека в отношении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иностранцев и социально уязвимых групп не повторялись.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ледует также разработ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истемные меры».

SNS-репортёрский корпус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Кёнги

〈인터넷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1345外国人综合咨询中心”，外国劳动者人权侵害综合支援！... 法律咨询及治疗支援

法务部表示,如果发生外国劳动者人权侵害事件时,将通过“1345外国人综合咨询中心”提供一站式受害支援服务。

本次对策旨在迅速救助遭受严重人权侵害的外国劳动者,并防止类似事件再次发生。

对此,遭受人权侵害的外国劳动者给“1345外国人综合咨询中心”打电话,确认人权侵害事实的话,根据受害类型,可以与“法务部一站式解决中心”或“雇佣劳动部外国人咨询中心”等连接,得到针对性的受害支援。

“1345外国人综合咨询中心”是一个多语种信访咨询窗口,用英语、中文、日语、越南语在内的20种语言提供外国人滞留国内所需的各种生活信息和出入境、滞留相关信访咨询。

案例1) 遭受暴力侵害的中国籍劳动者与“1345外国人综合咨询中心”进行了咨询,并连接了“法务部一站式解决中心”,接受了有关暴力的专业咨询,之后联系了法律救助公团,并得到了法律咨询及诉讼支援及治疗费支援等服务。

案例2) 遭受数码性犯罪的女性外国人也与“1345外国人综合咨询中心”进行了咨询,并连接“法务部一站式解决中心”,获得了法律咨询和治疗支援等。

除此之外,法务部还计划预防在产业现场可能发生的外国劳动者的人权侵害,并在发生人权侵害时确保迅速能够得到救济,以多种方式向外国劳动者提供“人权保护信息”。

外国劳动者在从签证申请到入境审查、外国人登记、延长滞留期限等程序的过程中,计划最多用20种语言介绍“人权保护和受害救济”信息。

同时,还将通过短信向雇佣外国劳动者的企业主介绍人权保护程序,申请签证发放认证书时,将确认是否在营业场所、宿舍等张贴多国语言“外国劳动者权益保护指南”,并将其反映在签证审查中。

法务部长官郑成浩(音)表示:“以前即使外国劳动者遭受人权侵害,也因语言障碍与救济程序复杂,难以获得实质支援”,“通过此次对策,外国劳动者可以通过‘1345外国人综合咨询中心’迅速得到实质性的保护。今后也会尽最大努力让外国居民在韩国受到尊重,安全地工作。”

〈한글 기사 23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배움에서 일자리까지” 자립의 꿈! 광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9월 광주시 관 내 중·장기 체류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한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미래찾기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과정 ▲바리스타 1급 자격증 취득과정 ▲라떼아트 심화과정 등 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됐다.

미래찾기 과정에는 9명이 참여해 전원 수료했다. 이어 진행된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과정에서도 9명이 모두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다. 바리스타 1급 자격증 취득

과정에는 6명이 참여하여 5명이 자격증 취득에 성공하였고, 라떼아트 심화과정은 6명 중 5명이 수료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결혼이민자 3명이 센터 내 ‘카페, 다이음’ 시범운영에 바리스타로 채용되며, 교육-자격취득-취업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 교육에 참여한 결혼이민자들은 “자격증 취득으로 자신감이 생겼다”라며 “커피 기술을 배워 지역사회에서 일할 기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수희 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의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 광주시가족센터, 온 세대 함께 추석대잔치...놀이와 체험 행사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추석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우리 가족 추석대잔치’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행사는 당일 오전 ‘달토끼 도시락’과 ‘오란다 간식’을 가족이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마련하여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마련했다. 오후에는 윷놀이,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체험을 진행해 온 가족이 즐겁게 참여하며 명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이수희 센터장은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가족 간 친밀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 2025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사업

# 다가진 하루2

문화 · 족의 -한

## 서울랜드 나들이

**모집대상**  
관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와 부모  
(7세 자녀부터 참여가능)

**신청기간**  
2025. 10. 2.(목) ~ 10. 21.(화)

**신청방법**  
광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프로그램 신청] - [다가진 하루2] 신청하기  
또는 전화문의  
※ 평일 9시 ~ 18시 운영(12시~13시 점심시간)

**문의**  
☎ 070-4706-3626

☒ 사진 인원파악을 위해 홈페이지에 신청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수의 가족이 신청하면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참여 확정 연락(3회)을 받지 않을 시 신청이 취소됩니다.

☒ 앞서 진행된 「다.가.진.하루」 참여가족에게 우선 참여 기회가 주어집니다.

**광 주 시 가 족 센 터**

### 다문화가족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 GO,시간여행!

## 역사탐험대 모집!!

역사를 '좋아하게' 만드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모집대상**  
다문화가족자녀 초등 3, 4, 5, 6 학년 20명  
★ 외국인가정,중도입국 자녀 신청가능  
★ 기초학습대상자,3회기 모두 참여자 우선 선정

**모집기간**  
9월29일(월)~10월19일(일) 선착순!!  
★ 10월 21일(화)부터 순차 참여 확정연락드리며,  
참여확정 연락을 받지 않을 시 신청이 취소됩니다.

**내용**  
1회기 - 한국사 강의 / 센터  
2, 3회기 - 현장체험 / 외부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  
★ 전세버스 이용 함께 출발, 점심 제공!

**신청방법** 자녀이름으로 신청!!  
[센터홈페이지]-[프로그램안내]-  
[신청]-[역사체험 신청]-[신청완료]

“재미있는 역사여행~ 함께 떠나자!!”

**[역사체험 일정]** 3회기 모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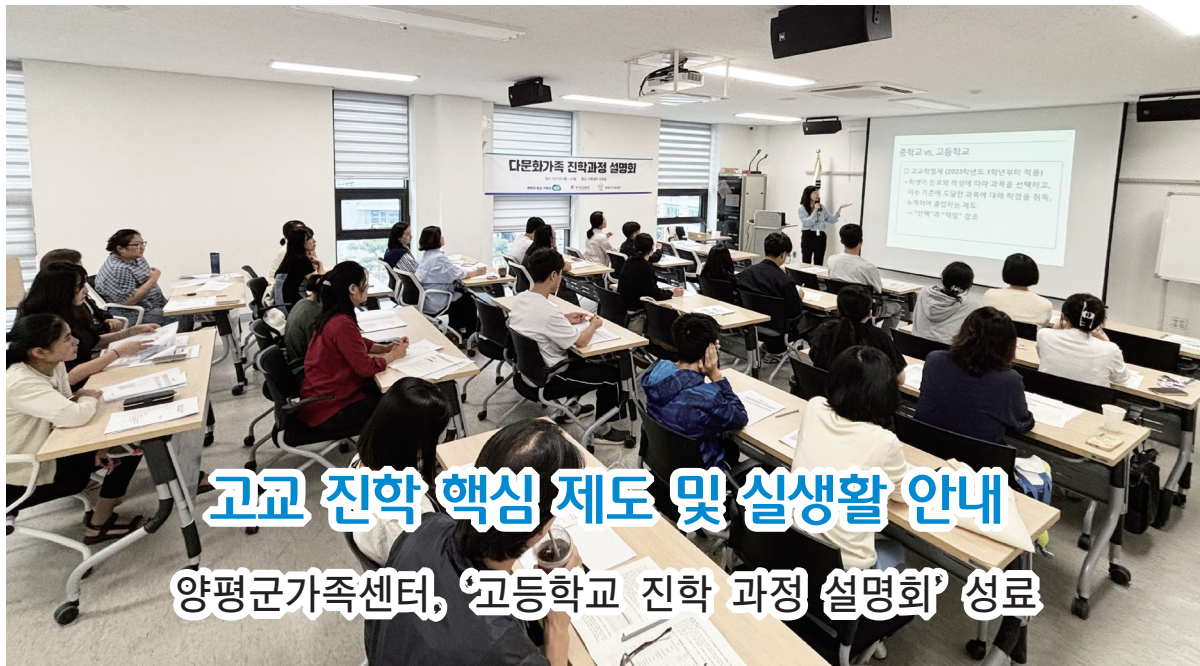
- 10월 25일 (토) 10시~12시 '史(사)통팔달 한국사' 강의
- 10월 30일 (목) 09시~16시 경복궁
- 11월 06일 (목) 09시~16시 국립중앙박물관

★ 평일은 학교에 체험학습신청서 제출 후 참여가능  
★ 일정 및 시간은 날씨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기초학습지원 070-4706-3618

**광 주 시 가 족 센 터**





## 고교 진학 핵심 제도 및 실생활 안내 양평군가족센터, '고등학교 진학 과정 설명회' 성료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다문화 및 비다문화 가정 학부모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진학 과정 설명회'를 지난 9월 28일 오후 2시, 행복플러스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학부모·보호자들이 한국의 고등학교 제도와 학교 문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고, 자녀의 학업 및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8월에 열린 중학교 진학 과정 설명회가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은 바 있어, 이번에는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된 핵심 제도와 실제 생활에 대한 보다 심화된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고교

학점제 및 단위편제, 일반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단위 배당 기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및 평가 제도, 일반대학 및 특별전형 등을 포함한 대학입학 전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고등학교 생활 전반 안내 등이 다뤄졌다.

또한 참석자들에게 관련 자료가 배포됐으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해 통·번역 서비스도 제공했다.

박우영 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녀들이 학교에 보다 자신감 있게 적응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송하성 기자

## 양평 소나기마을 문학교실 이수정 재미작가 작품 만남

미국에 거주하는 이수정 재미작가가 10월 2일 양평군 서종면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을 찾아 특별 강연을 했다. 이 작가는 부산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사내아나운서와 사보 기사를 거쳐 카피라이터 및 잡지 에디터로 있다가, 2000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살면서 소설과 논픽션 다수를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을 했다.

현재 이수정 작가는 뉴저지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한국문화 이벤트 코디네이터로 일하며 책에 파묻혀 소설 쓰기에 매진 중이다. 2022년 「타이거 마스크」로 재외동포문학상 대상을 수상했고, 2023년 「흐르는, 제로」로 디아스포라 문학 웹진 「너머」의 신인문학상 수상, 2024년 「코타키나발루의 봄」으로 영남일보 신춘문예와 2025년 「숨이 차오를 때」로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각각 당선되었다. 그리고 장편소설 『단역배우 김순호 씨』로 5천만 원 고료제4회 고창신재효문학상을 수상했다.

이 작가는 청중에게 특유의 경쾌한 어조로 인사한 뒤 '소설을 쓸 때 첫 문장의 중요성'에 관해 강연의 문을 열었다. 자신에게 찾아온 『단역배우 김순호 씨』의 첫 문장은 어머니와 나는 실제 통화 내용에 기인한다며, '오랜만의 전화에서 엄마는 어디 좀 가자고 했다. 지방이라 기차를 타고 가야 한다고 했다.'는 대목을 소개했다. 소설과 사실, 소설과 상상, 실제 인물과 소설 속 인물, 장소 등을 작품에 어떻게 고여놓았는지 예를 들어가며 소설 창작법을 열강했다.

단역배우였던 이 작가의 어머니는 딸이 쓴 소설책을 받아들고 검단산 꼭대기에 올라가 읽다가 '폐렴으로 죽은 아이'가 나오는 대목에서 목놓아 울었다고 한다. 실제 폐렴으로 아들을 잃고 울지 못했던 회한을 마침내 털어낸 듯하다고 이 작가는 짐작했다. "제 어머니는 그 깊은 슬픔을 자기만의 이야기로 풀어내지 못해 평생 회한을 품고 사셨던 것 같아요."라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소유해 볼 것을 권했다.

강연 후 이 작가는 김중희 총장과 그의 대답에서 "모든 사람은 서로에게 다 고인 돌"이라며, 자신에게 고인 돌이 되어준 특별한 인연을 밝혔다. "대답자로 옆에 앉아계신 김중희 교수님의 소설 창작 강의를 듣고 소설을 써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라며 "김중희 교수님이야말로 저를 소설가로 고여준 고마운 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청중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지금까지 들어본 소설 창작 강의 중 이수정 작가님의 강의가 단연 최고"였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2025 소나기마을 문학교실'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에서 열린다. 향후 김진명 소설가, 시인이자 예술원 회원인 최동호 고려대 교수, 김민식 전 MBC PD, 소나기마을 홍보대사 강성진·이현영 부부 콘서트, 개그맨 김종석 방송인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다문화가족도 참여해 보자. 문의 031-773-2299

송하성 기자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 양평군,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 동시 실시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10월 15일부터 관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인플루엔자)·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독감(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 어린이(2012.1.1.~2025.8.31. 출생자)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1960.12.31. 이전 출생자)이다.

이 중 어린이와 임신부는 지난 9월 22일부터 접종이 시작됐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15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다문화가족도 이 기준에 해당하면 물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1960.12.31. 이전 출생자) △생후 6개월 이상부터 64세 이하 면역저하자 및 감염 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며, 이번에 사용되는 백신은 업데이트된 변이 대응 백신(LP8.1. 기반의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으로, 감염 및 전파 위험을 줄이고 중증 진행과 사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백신은 동시 접종이 가능하며,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하게 된다. 군은 유행 시기인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장하며, 이는 두 질병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대상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접종 가능한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군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가정에 지정 의료기관이 포함된 예방접종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접종 정보를 안내했다.

의료기관별 접종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는 방문 전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고, 신변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꼭 지참해야 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는 해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달라지므로 매년 접종이 필요하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만큼, 두 가지 백신을 모두 접종하시어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 지역주민 교류와 소통 역할 톡톡히!

하남시가족센터,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 눈길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가 운영 중인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율적 개방 구조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교류와 소통을 이끄는 복합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8월부터 5주간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바리스타 프로그램에는 평균 105명, 총 1,052명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는 공간 이용 목표 인원의 약 20%에 달하는 실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보여준다.

바리스타 프로그램은 단순한 직업 교육과 체험을 넘어 센터와의 유대감 형성 및 공간 체험 확대, 지역사회와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이루었다. 또한, 운영 기간 ‘텀블러 사용하기’ 캠페인과 ESG 환경 배너 설치, 자율 후원함 운영 등을 통해 환경 보호 실천과 자발적 참여 문화 조성에도 기여했다.

베트남수채화 전시는 공간의 시각적 분위기를 새롭게 구성하며, 17점 중 11점을 교체해 계절감을 반영함으로

써 반복 방문자에게도 늘 새로운 공간 경험을 제공했다. 손뜨개 프로그램은 4.83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으며, ‘피어나다’ 꽃꽂이 클래스는 다문화, 비다문화 가족이 함께하는 통합형 프로그램으로 7개국 가족이 참여 중이다.

9월 기준 11회가 진행됐으며, 출석률 100%라는 성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단순한 공간 이용을 넘어 직접 체험하고 머무는 커뮤니티 허브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병용 센터장은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은 단순한 프로그램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이 서로 만나고 소통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류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과 가족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 하남이 K팝의 성지로 집결! 다문화가족도 함께 즐겨요

전 세계 7천만 K팝 팬들의 시선이 단 하나의 도시, 하남으로 쏠린다. K팝 댄스씬을 움직이는 월드 클래스 인플루언서들이 마침내 하남에 집결한다.

하남시는 오는 10월 21부터 23일까지 사흘간, 하남문화재단 주최로 총 7천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월드클래스 K-POP 댄스 인플루언서 20팀을 초청해 ‘2025 글로벌 K-POP 댄스 챌린지 in Hanam’을 개최한다.

본 공연에 앞서 10월 21일과 22일, 하남의 심장부가 거대한 스튜디오로 변신한다. 미사경정공원의 수변 풍경, 당정뜰의 고즈넉한 자연, 유니온타워의 압도적인 전경은 인플루언서들의 무대가 된다. 칼 같은 춤선과 디테일한 표정 연기를 하남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 녹여내며 한 편의 예술 작품과 같은 커버 댄스 영상을 제작한다.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댄스 퍼포먼스 콘서트’는 10월 23일 오후 7시 30분,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우크라이나의 ‘Ten Yujin’(팔로워 2,316만), 호주의 ‘Hannah Kaye Balanay’(팔로워 1,836만) 등을 포함한 20팀의 인플루언서들이 화려한 댄스 경연을 펼친다. 방송인 크리스티안 부르고스의 재치 있는 진행과 스페셜 게스트 이찬재, 안경자의 특별 무대는 축제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하남시와 하남문화재단은 이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글로벌 K-POP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힘을 계획이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하남문화재단 홈페이지([www.hnart.or.kr](http://www.hna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 중도입국 자녀, ‘송편’ 빛으며 전통문화 체험...하남시가족센터, 문화 체험 프로그램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10월 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한국의 대표 명절인 추석을 맞아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송편 빚기’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으로 이주한 중도입국 자녀들이 한국의 전통문화와 명절의 의미를 체험하며 문화 적응을 경험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도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 아동들은 송편의 유래와 만드는 방법을 배우

고, 손수 반죽을 빚어 각자의 개성을 담은 송편을 만들며 명절 분위기를 즐겼다. 특히 송편을 찌는 과정에서는 전통 방식에 따라 솔잎을 깔아 향긋한 솔향과 함께 추석 고유의 풍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찐 송편에는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참기름을 바르는 전통적인 지혜도 함께 체험했다.

참가 아이들은 솔잎을 직접 송편 위에 얹고, 참기름을 바르는 과정을 흥미롭게 관찰하며 “캄보디아에서 바나나 잎에 떡을 싸서 찌는 것과 비슷하다”, “향이 좋다”, “신기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센터 프로그램 담당자는 “중도입국 자녀들은 낯선 환경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익히며 적응해야 하는 만큼, 전통 명절과 같은 문화체험은 소속감과 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송편을 만들며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명절의 따뜻한 분위기를 체험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감도 함께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참여한 한 아동은 “한국에서 처음 추석을 보내게 되었는데, 송편을 직접 만들면서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즐거웠다”고 밝혔다.

아이가 만든 송편을 받은 한 학부모는 “아이에게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해줄 좋은 기회였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하남시가족센터는 이번 송편 빚기 체험을 비롯해 다문화가족과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 언어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도입국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가족센터 사업2팀(031-792-29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10월 1일 결혼이민자 취·창업 지원을 위한 자격증 교육 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실습 중심의 전문교육 과정으로, 미용사(헤어) 국가자격증반 12명 중 11명이 수료하고 4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나머지 인원도 현재 자격시험에 꾸준히 도전 중이다. 또한, 바리스타 자격증 받은 15명 전원이 수료와 함께 자격증을

취득하며 높은 성취도를 보여주었다. 종강식에서는 수료증과 자격증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을 마친 결혼이민자들은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되돌아보며 교육을 통해 성장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교육에 참여한 결혼이민자들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함께 배우고 연습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 뿌듯하고 앞으로 더 도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성영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분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질적인 취·창업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이 매우 뜻깊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결혼이민자분이 자신감을 갖고 사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이 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확보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취·창업 교육 과정을 확대·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 평택시도서관, 책축제 with 책임있는학교 개최

평택시(시장 정장선)의 대표 시민 독서운동 ‘평택, 책을 택하다’ 「2025 평택 책축제 with 책 읽는 학교」가 오는 11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 배다리도서관 잔디마당에서 개최된다.

시민의 손으로 직접 ‘올해의 책’을 선정하고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며 이웃을 만나는 시민독서운동은 18년째 이어져 왔다. 이번 책축제는 시민 작가 작품 전시, 책 읽는 학교, 생태 동아리, 평택문인협회, 지역 서점, 지역 예술인이 참가해 풍성하고 다채로운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낭독 북콘서트 공연, 북화술 버블쇼, 벼룩시장, <4번 달걀의 비밀> 하인진 작가와 아이스크림 캐릭터 만들기, 전래놀이, 지역작가와의 만남, 스티커 만화경과 팔랑 잡자리 만들기, 평택지역 예술인 체험으로 장서인과 목공예 등 어린이부터 가족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문의 031-8024-5467/5497 김영의 기자

아버지역할지원사업

## 아빠찬스 : 똑똑한 아버지 되기

아버지교육(영아 오감놀이)

**대상** 영아 자녀와 아버지 16가족(32명) / **총** 아버지 1명·자녀 1명  
[1차] 06~12개월(2024년 11월) - 2025년 5월(영아와 아버지 8가족(16명))  
[2차] 13~18개월(2024년 5월) - 2024년 10월(영아와 아버지 8가족(16명))

**내용** 아빠와 함께하는 오감놀이(주제: 결명자놀이)

**장소** 다가온(경기 평택시 평택2로 125 1층)

**일시** [1차] 2025.11.08.(토) 10:00~11:30  
[2차] 2025.11.22.(토) 10:00~11:30

**신청기간** 10.15(수) 10:00 ~ 10.21(화) 10:00  
★ 신청자가 많으면 신청이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https://pttc.familynet.or.kr/center/>)

**문의** 지역돌봄팀) 031-615-3906

**필수체크!**

1.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아버지와 자녀 모두 신청 필수로 되어야 하며, 신청 시 가족 구성원 중 누락하여 신청하거나 대상 연령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각 회차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대기** 접수로 처리됩니다.

2. 본 프로그램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신청 시 나타나는 팝업은 단순 접수 순서를 의미할 뿐 확정 번호가 아니므로, 최종 확정 대상자는 모집이 완료된 후 일주일 이내에 확정 문자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우선순위 ① 예비아빠지 교육 이수자 ② 아버지역할지원사업 신규 참여자)

3. 위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에 가족센터 프로그램 신청 후 취소한 이력이 있거나 당일 불참 이력이 있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제한**됩니다.

가족센터 평택시가족센터

이중언어 교육지원 사업

## “부모 코칭”

사춘기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엄마이자 친구가 되자

|       |                                 |
|-------|---------------------------------|
| 교육 내용 | 사춘기 자녀와의 화모니 대화법                |
| 교육 일시 | 2025.10.25.(토) 10:00 ~ 12:00    |
| 교육 장소 | 가족센터 103강의실 (서정로 295, 송탄보건소 1층) |
| 신청 대상 | 이중언어교육을 참여하는 수강생 부모 15명         |
| 강사 소개 | 부모교육 전문가 오승희 강사                 |
| 신청 문의 | 031-615-3950 가족교육팀              |
| 신청 방법 | QR코드를 찍고 수강신청하기                 |

공부 너무 어려워...

괜찮아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가족센터 평택시가족센터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종합 지원!

### 법무부, 피해 유형에 따라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법률 상담 및 치료도 지원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이번 대책은 외국인 노동자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하고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해 마련됐어요.

이에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전화를 걸어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유형에 따라 ‘법무부 원스톱솔루션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에 연계하여 맞춤형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와 출입국·체류관련 민원 상담을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를 포함한 20개 언어로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 안내 창구예요.

**사례1)** 폭행 피해를 입은 중국 국적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상담하였고 ‘법무부 원스톱솔루션센터’에 연결하여 폭행과 관련한 전문 상담을 받고 이후 법률구조공단에 연결하여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및 치료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사례2)**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 외국인 역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상담하였고 ‘법무부 원스톱솔루션센터’에 연결하여 법률 상담 및 치료 지원 등을 안내했어요.

이 외에도 법무부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보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부터 입국심사,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대

20개 언어로 ‘인권 보호와 피해구제’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에요.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문자로 인권 보호 절차를 안내하고, 사증발급신청서 신청 시에는 사업장·숙소 등에 다국어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 안내문’ 게시 여부를 확인하여 비자 심사 시에 반영할 방침이에요.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인권침해를 당해도 언어장벽과 구제절차 접근이 어려워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외국인주민이 한국에서 존중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어요.

〈중국어 17면, 베트남어 6면, 러시아어 11면, 태국어 6면, 영어 11면, 몽골어 하단〉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1345 Гадаадын иргэдэд зориулсан нэгдсэн мэдээллийн төв’ гадаад ажилчдын хүний эрхийн зөрчлийн асуудалд иж бүрэн дэмжлэг үзүүлж байна!

Хууль зүйн яамнаас мэдэгдснээр, гадаад ажилчдын хүний эрхийн зөрчилтэй холбоотой хэрэг гарсан тохиолдолд “1345 Гадаадын иргэдэд зориулсан нэгдсэн мэдээллийн төв”-өөр дамжуулан хохирогчдод зориулсан нэг цэгийн дэмжлэгийн үйлчилгээг үзүүлэхээр төлөвлөж байна.

Энэ удаагийн арга хэмжээг гадаад ажилчид хүний эрхийн ноцтой зөрчилд өртсөн тохиолдолд тэдэнд түргэн шуурхай тусламж үзүүлэх, мөн ийм төрлийн хэрэг дахин гарахаас урьдчилан сэргийлэх зорилгоор боловсруулсан юм.

Иймээс хүний эрхийн зөрчилд өртсөн гадаад ажилчин “1345 Гадаадын иргэдэд зориулсан нэгдсэн мэдээллийн төв”-рүү залгаж, хүний эрхийн зөрчил гарснаа баталгаажуулбал, хохирлын төрлөөс хамааран “Хууль зүйн яамны Нэг цэгийн шийдлийн төв” эсвэл “Хөдөлмөр, нийгмийн хамгааллын яамны гадаад ажилчдын зөвлөгөөний төв” зэрэг холбогдох байгууллагуудтай холбон, тухайн хүнд тохирсон тусламж, дэмжлэг

гйг авах боломжтой. “1345 Гадаадын иргэдэд зориулсан нэгдсэн мэдээллийн төв” нь гадаадын иргэдийн Солонгост оршин суухад шаардлагатай өдөр тутмын амьдралын мэдээлэл болон хил, оршин суухтай холбоотой өргөдөл, асуулгын зөвлөгөөг англи, хятад, япон, вьетнам зэрэг нийт 20 хэлээр хүргэдэг олон хэлний үйлчилгээний төв юм.

**Жишээ 1)** Хятадын иргэн нэгэн ажилчин хүчирхийлэлд өртсөний дараа “1345 Гадаадын иргэдэд зориулсан нэгдсэн мэдээллийн төв”-тэй холбогдон зөвлөгөө авсан бөгөөд “Хууль зүйн яамны Нэг цэгийн шийдлийн төв”-тэй холбогдож, хүчирхийлэлтэй холбоотой мэргэжлийн зөвлөгөө авчээ. Үүний дараа Хууль зүйн туслалцааны корпорацитай холбон, хууль зүйн зөвлөгөө, шүүхийн үйл явцад дэмжлэг, эмчилгээний зардлын тусламж зэрэг үйлчилгээг үзүүлсэн байна.

**Жишээ 2)** Дижитал бэлгийн гэмт хэргийн хохирогч болсон гадаад эм

эгтэй мөн “1345 Гадаадын иргэдэд зориулсан нэгдсэн мэдээллийн төв”-тэй холбогдон зөвлөгөө авч, “Хууль зүйн яамны Нэг цэгийн шийдлийн төв”-тэй холбон, хууль зүйн зөвлөгөө болон эмчилгээний тусламж авах талаар мэдээлэл, дэмжлэг авчээ.

Үүнээс гадна, Хууль зүйн яам нь үйлдвэрийн болон ажлын талбарт гарч болзошгүй гадаад ажилчдын хүний эрхийн зөрчлөөс урьдчилан сэргийлэх, мөн хүний эрхийн зөрчил гарсан тохиолдолд тэдэнд түргэн шуурхай тусламж авах боломжийг бүрдүүлэх зорилгоор гадаад ажилчдад “хүний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мэдээллийг” олон төрлийн хэлбэрээр хүргэхээр төлөвлөж байна.

Гадаад ажилчид виз мэдүүлэх, хилээр нэвтрэх шалгалт өгөх,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бүртгэл хийлгэх, оршин суух хугацаагаа сунгуулах зэрэг үйл явцыг дамжин өнгөрөх үед нь, хүний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болон хохирлын нөхөн олговор авахтай холбоотой мэдээллийг нийт 20 хэлээр хүргэхээр төлөвлөж байна.

Мөн гадаадын ажилчдыг ажиллуулж байгаа ажил олгогчдод хүний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журам,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алаарх зурвасаар мэдэгдэж, виз олгох зөвшөөрөл хүсэх үед аж ахуйн нэгж, орон сууц зэрэгт олон хэл дээрх “Гадаадын ажилчдын эрх ашгийг хамгаалах зааварчилгаа” байршуулсан эсэхийг шалгаж, визний үнэлгээнд тусгах арга хэмжээг хэрэгжүүлэхээр төлөвлөж байна.

Жон Сон Ху хууль зүйн сайд “Өмнө нь гадаадын ажилчид хүний эрх зөрчигдөхөд хэлний саадтай, хамгаалах журмын боломж хомс байсан тул зохих дэмжлэг авч чадахгүй байлаа” гэж хэлэв. Тэрээр “Энэ удаагийн арга хэмжээний хүрээнд гадаадын ажилчид ‘1345 Гадаадын Иргэдийн Нэгдсэн Мэдээллийн Төв’-өөр дамжуулан түргэн шуурхай, бодит хамгаалалт авах боломжтой болсон. Цаашид ч гадаадын оршин суугчид Солонгост хүндлэгдэж, аюулгүй орчинд ажиллах боломжийг бүрдүүлэхэд бүх хүчин чармайлтаа гаргана” гэж мэдэгдлээ. <хүлээн авч үзсэн>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결혼이민자 '요리로 나누는 명절의 정' 평택시가족센터, '다(多)함께! 요리조리' 프로그램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9월 9일부터 30일까지 약 3주간, 초기입국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북부 요리 프로그램 '다(多)함께! 요리조리' 10회기~12회기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10회기에서 갈비찜과 약식을 함께 만들어 보며 한국 전통 음식의 조리법과 의미를 배우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참여자들은 음식에 담긴 한국의 정과 명절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다. 11회기에서는 육전과 잡채를 요리하며 명절 상차림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을 경험했다.

참여자들은 서로의 요리 과정을 공유하고 맛을 비교하면서 한국 가정식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히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진행된 12회기는 평택시 여성지도자연합회(회장 이봉자) 회원들과 결혼이민자 14명이 참여해 '친정엄마와 같이 만드는 행

복한 밥상'을 주제로 한 특별한 요리 활동이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나박 물김치 담그기를 배우고, 동태전, 해물야채전, 고치전 등을 예쁘고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 부치면서 서로 대화하고, 문화를 이해하며 이웃 간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김성영 센터장은 "이번 요리 프로그램은 단순한 요리 활동을 넘어, 명절 문화를 배우고 가족 같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라며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평택시 여성지도자연합회 회장님과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 진로체험 '두드림' 운영하다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9월 6일과 9월 20일 진로설계지원사업 '두드림(Do Dream)' 프로그램 일환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집단상담과 직업 체험 프로그램 2회기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다문화자녀 10명이 참여했으며, 집단상담과 직업체험을 통해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1회기에서는 성격유형검사를 바탕으로 자신과 친구의 성격 차이를 이해하고, 이름표 만들기 활동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며 친밀감을 형성했다. 2회기에서는 '직업 이해'를 주제로 직업 맞추기 퀴즈, 직업 분류하기, 직업과 직업가치관을 연결 지어보는 기회를 얻었다.

직업체험은 '디저트개발자'와 '도예가'를 경험했다. '디저트개발자' 프로그램에서는 과일 모양의 화과자를 만들어 모양과 맛을 연구하는 활동을 했으며, 도예가 체험에서는 도자기 제작 과정을 익히고 직접 손잡이 그릇에 다양한 기법을 이용해 나만의 개성을 담은 그림을 그려내는 활동을 했다.

참여자들은 "성격유형을 알게 되어 나와 친구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 다양한 직업에 대해 배우고, 나에게 맞는 일을 생각해보는 기회였다."라며 "직접 만들기 활동을 하는 것이 즐거웠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꿈을 실현하는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두드림(Do Dream)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자신의 꿈을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집단상담과 직업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진로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 영유아 두뇌발달 오감놀이 '헬로오감국'

###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영유아 성장 도와요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4호점에서는 지난 8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평택시 관내 거주 7개월~22개월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두뇌발달 오감놀이 '헬로오감국'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토마토 실물놀이 ▲군인 아저씨와 공놀이 ▲천사채 촉감놀이 ▲노오란 옥수수야 ▲까치와 흥시놀이 ▲동물 친구들을 만나요 등 다양한 주차별 주제로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닭가슴살, 감자, 애호박 이유식 등을 제공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아이들은 다양한 식재료

를 만져보고, 냄새를 맡는 경험을 통해 감각 발달과 탐색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부모와 함께 오감 체험을 경험함으로써 애착 형성 및 정서적 안정감 향상에 도움이 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가정에서는 사실 오감놀이를 쉽게 접할 수 없는데 다양한 재료를 통해 센터에서 해볼 수 있는 기회라서 너무 좋았다."라며 "아이랑 집에만 있다가 공동육아나눔터를 알게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성영 센터장은 "공동육아나눔터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오감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부모님들은 서로의 양육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라며 "이러한 작은 경험들이 아이들의 발달에 큰 힘이 되고, 가정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4호점은 관내 지역사회와 가정을 연결하는 건강한 돌봄 플랫폼으로 도약하고자 관내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www.kdca.go.kr

영어

## What is tuberculosi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If you are in contact with a tuberculosis patient, it is important to participate in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get tested."



### 01 What is tuberculosis?



- Tuberculosis is an infectious disease that occurs when tuberculosis bacteria become active and multiply within the body. When tuberculosis patient coughs, sneezes, or talks, tuberculosis bacteria are released into the air and can infect people around them, such as family and friends.
- Symptoms of tuberculosis include coughing for more than two weeks, fever, cold sweats while sleeping, chest pain, weight loss, fatigue, loss of appetite, and hemoptysis, and there may be no symptoms in the early stages.

### 02 What is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is a condition in which a person is infected with tuberculosis bacteria and the tuberculosis bacteria are present in the body but are not active or proliferating.
- If there are no symptoms during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the tuberculosis bacteria are not transmitted to other people.

### 03 What is tuberculosi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 If an infectious tuberculosis patient occurs in a group facility such as a school or workplace,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is conducted on people who have been in contact with the tuberculosis patient.
- Stop spreading of tuberculosis through rapid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treating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to prevent development of tuberculosis in the future.

### 04 What is a contact?



- A person who has been in contact with a person with TB for a long period of time in the same indoor space as the person with TB and is at high risk of being infected with the TB bacteria.

### 05 Testing for conta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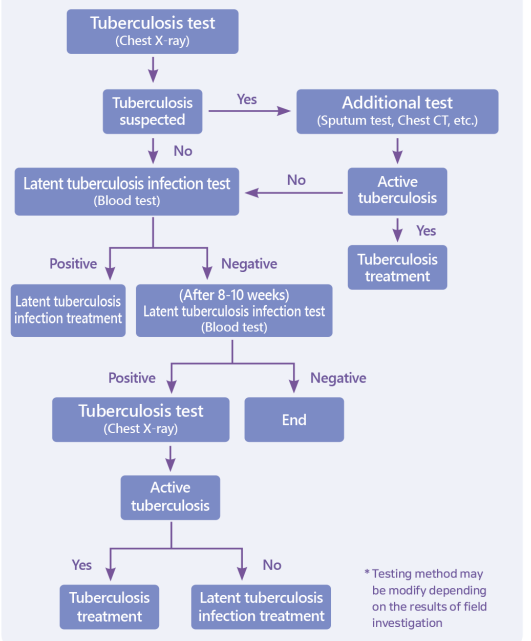
#### ① Tuberculosis test

All contacts will undergo a chest X-ray to check for active tuberculosis. A sputum test is performed if tuberculosis is suspected as the result of a chest X-ray.

#### ②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test

To check for tuberculosis infection there are tuberculin skin test and interferon gamma secretion test (blood test). If the test result is positive it means that you are infected with tuberculosis bacteria.

#### • Tuberculosis and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testing methods •



## Prevention of tuberculosis in Daily life

- 1 Be sure to practice proper coughing etiquette
  - Cover your mouth and nose with your sleeve when coughing
  - Wash your hands for at least 30 seconds after coughing
- 2 If coughing or phlegm persists for more than 2 weeks, get tested for tuberculosis.
- 3 Get tested when investigated tuberculosi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 For inquiries and downloading promotional and educational materials

Inquiries for Tuberculosis epidemiological survey etc.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Website [www.kdca.go.kr](http://www.kdca.go.kr)

Related educational data, etc.

Tuberculosis ZERO homepage [www.kdca.go.kr/tbzero](http://www.kdca.go.kr/tbzero)

<Ministry of Education Website> Korea Study Abroad Information System [www.studyinkorea.go.kr](http://www.studyinkorea.go.kr)

<Ministry of Justice website> Immigration and foreign policy headquarters [www.immigration.go.kr](http://www.immigration.go.kr)

<Hi Korea> [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 06 FAQ

#### Q Should I receive treatment for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A Treatment is recommended for contacts because they are at a higher risk of developing tuberculosis than the general population. Completing treatment for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can prevent the development of tuberculosis by up to 90%.

#### If you are treated for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 Prevents tuberculosis by 90%

If treatment is completed within the specified period using standard treatment, It can prevent the development of tuberculosis by up to 90%.

\*Rifampin for 4 months (4R), isoniazid/rifampin for 3 months (3HR) are recommended first, and isoniazid for 9 months (9H) is optionally considered.



\*Source: Kim Joo-sang, National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screening project and Mid- to long-term effect analysis: management of high-risk groups. 20years of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Policy Research Service

#### Q Is it expensive to treat tuberculosis or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A If you are a member of health insurance, you will receive full coverage of self liability expenses (exemption) related to treatment of tuberculosis and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 Q How should I get contact testing?

A If a tuberculosis patient occurs in a group facility, the public health center in charge of the facility conducts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to determine the contacts subject to testing. Contacts will be notified of the test date and location by the public health center and can receive the test for free.

#### Q Is it mandatory to undergo contact testing?

A Tuberculosi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is being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nd Articles 10 and 19 of the Tuberculosis Prevention Act. Person who have been in the same indoor space as a tuberculosis patient are at high risk of being exposed to tuberculosis bacteria and becoming infected, so they must participate in testing.

#### Q What should I do if I do not receive treatment for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A If a contact does not receive treatment for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they should receive a chest X-ray examination every three months for one year from the date of diagnosis of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to monitor for the development of tuberculosis.





## 기혼여성, 가사스트레스 'OUT'

### 평택시가족센터, '스트레스 심표' 운영해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9월 15일과 9월 29일 2회에 걸쳐 기혼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가사 스트레스 해소지원사업인 '스트레스 심표'를 진행했다.

'스트레스 심표'는 평택복지재단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안정적인 가정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가사 스트레스가 높은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경감 및 스트레스 해소법, 감정 환기 등을 위해 집단상담, 여가문화 프로그램, 정리수납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진행한다. 9월 1차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여가문화 프로그램 '명상'은 '바디앤브레인 명상센터'와 연계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호흡, 이완, 스트레칭 및

명상활동을 통해 감정을 비워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호흡법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9월 2차 프로그램은 '정리수납 프로그램 1회차'로 정리정돈 업체인 '언니찬스'와 연계해 공간별 수납법, 옷과 가구 배치법 등과 같이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한 대상자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이 겹쳐서 우울감이 많이 쌓였었는데 명상이라는 활동을 통해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활동이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말했다.

가사스트레스 해소지원사업 '스트레스 심표'는 10월 정리수납 프로그램 2회차가 진행되며, 사회공헌으로 이뤄지는 여가문화 프로그램 밀반찬 만들기 및 초기입국 결혼이민자 반찬 후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 보드게임으로 가족 소통과 협력

### 평택시가족센터, 아동부모 '보드게임 놀이터'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 공동육아나눔터2호점은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19년생~21년생 아동 양육 12가정을 대상으로 '보드게임 놀이터' 프로그램을 총 10회기에 걸쳐 운영했다.

이번 '보드게임 놀이터' 프로그램은 한국보드게임협회 소속 강사를 연계해 진행됐다. 아동·보호자가 함께 다양한 보드게임의 정보도 얻고 놀이 방법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또래 가정과 어울리며 놀이를 통해 소통 및 공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보드게임에

관심을 두는 시기에 활동할 수 있어서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보드게임 방법도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라며 "아이가 함께 공동체 생활도 배우고, 공부를 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보드게임을 통해 아동과 부모가 함께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더불어 즐거운 활동으로 이어졌던 것 같다. 앞으로도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하여 참여 가정들의 성장과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사회의 열린 공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이용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 '평택 EVERYONE 축제' 열린다

### 10월 25~26일 소사벌레포츠타운 시민 모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 통합 30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월 25일(토)부터 26일(일)까지 이틀간 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평택 통합 30주년, 평택 EVERYONE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축제다. 지난 30년간의 성장과 통합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향한 도약의 뜻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행사는 24일(금) 성화 채화식 및 성화 봉송을 시작으로, 25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성화는 평택 각 권역을 순회하며 통합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전달하고, 축제의 개막과 함께 주 행사장인 소사벌레포츠타운으로 봉송된다.

이번 축제의 백미는 단연 '시민 퍼레이드'다. 25일(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평택 합정초~중앙2로 구간에 펼쳐지는 이번 행진은 시민과 지역 예술인, 청소년 그리고 군악대와 의장대가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통합 거리 퍼포먼스로 진행된다.

이번 행진에는 ▲관내 지역예술단 40팀 ▲관외 전문 공연팀 13팀 ▲군악·의장대초청공연팀(공군작전사령부·육군수도군단·육군본부) 3팀 ▲평택 농악 등 총 57개 팀이 참여하여 각계 각층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행렬을 선보인다.

이번 행진은 단순한 관람 행사를 넘어, '시민이 주인공이 되어 직접 참여하는 축제'로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개막식은 25일(토) 오후 6시부터 진행되며 ▲라포엠 ▲정태춘&박은옥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서범석 ▲박소연 ▲드론라이트쇼 등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폐막식은 26일(일)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되며 ▲로이킴 ▲박상민 ▲최정원 ▲이건명 ▲김현철(오케스트라) ▲이선영(성악) 등이 출연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 외에도 행사 기간에 시민 참여형 체험 부스, 예술·문화 전시, 시민 행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모두의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축제는 통합의 30년을 기념하고, 시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화합의 장으로 기획했다"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평택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 독자여러분께 알립니다

경기다문화뉴스는 경기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정보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주민 등 구독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혹은 구독을 원치 않는 분 그 밖에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다문화뉴스로 연락해 주세요.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7층(뉴네브 써빌드 메디컬동) 8호
- 전화 031-8001-0211(추석 이후 통화가능) ● 문자 010-2455-9331

신문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산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평택시, 수원시, 화성시, 파주시, 남양주시, 용인시, 광주시, 오산시, 하남시, 구리시, 양평군, 과천시, 연천군, 광명시

경기다문화뉴스



2025

놀자! 웃자! 가족이라서 좋다!

모든가족, 가을축제

일시

2025.10.25.(토) 10:00 ~ 15:30

장소

구갈 레스피아

1부

10:00~12:00 | 용인시 거주 아버지와 자녀 300명(선착순)  
용인시 거주 아버지와 자녀 및 가족 구성원(단, 아빠 필수!!)

2부

12:00~15:30 | 용인시민 누구나  
가족 공연(버블쇼, 매직쇼 등), 놀이/문화 체험, 후원 바자회

사전 접수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QR코드 참고

\*1부 걷기대회와 2부 가족축제는 각각 사전접수 진행(단, 가족축제는 현장 참여도 가능)

문의 | 용인시가족센터 031-323-7131

모든가족 가을축제로 놀러와요

용인시가족센터, 가족과 세대 간 소통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용인시가족센터(센터장 유지영)는 오는 10월 25일 구갈레스피아에서 ‘2025 모든가족 가을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1부 ‘아빠와 함께 걷기대회’, 2부 ‘가족축제’로 나누어 다양한 가족과 세대 간 소통을 도모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된다.

1부 ‘아빠와 함께 걷기대회’는 아빠와 자녀를 비롯한 가족이 함께 신갈천 일대를 걸으며 가족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족 구성원 간 유대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지는 2부 ‘가족축제’에서는 가족 키링 만들기, 세계의상체험, 가족 4컷 사진 촬영, 텀블러백 만들기, 비즈팔찌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전통놀이와 세계 여러 나라의 놀이체험을 통해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즐거운 시간을 마련하고, 매직 버블쇼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가족봉사단은 환경을 주제로 한 OX퀴즈와 인식개선 캠페인을 직접 기획·운영하며, 주민이 제안한 가족 캠페인 슬로건에 대한 현장 투표도 이뤄질 예정이다.

용인시가족센터 관계자는 “가을을 맞아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축제를 기획했다”며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통해 지역사회 내 모든 가족이 함께 어울리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용인시가족센터는 용인시가 설립하고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가족복지시설로, 가족관계 증진, 가족돌봄, 가족생활지원, 가족공동체 활성화 등 전문적인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지은 기자

용인특례시, 반려동물 문화축제 ‘용인시와 행복하개’...반려동물과 체험 및 펫티켓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반려인들을 위한 문화축제 ‘2025 용인시와 행복하개’를 19일 용인시실내체육관 앞 천연잔디광장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어울리며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용인시는 경기도수의사회와 용인시수의사회와 협력해 ▲반려견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체험활동 ▲‘펫티켓(반려동물 예절)’ 교육 ▲‘동물등록제’ 홍보와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며 어질리티 축하공연, 반려동물 운동회, 토크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행사장에는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급수대, 반려동물 전용 화장실, 천연잔디 놀이터가 마련된다.

또한, ‘반려동물 운동회’에서는 견주와 반려견이 함께 달리며 미션을 수행하는 ‘댕댕이 건강 달리기대회’, ‘멍! 때리기’, ‘OX퀴즈’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돼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진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에

서는 수의사와 훈련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건강, 행동교정, 미용 등 생활속 고민 상담을 진행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수의사 설채현 박사가 참여하는 ‘펫티켓(반려동물 예절)’ 교육에서는 반려동물의 행동 이해와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주제로 강연을 펼쳐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특히, 용인시 동물보호센터는 행사 현장에서 유기견 입양 부스를 운영해 반려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뜻깊은 캠페인도 진행한다.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캐리커처 ▲뱃지 만들기 ▲보물찾기 ▲포토존 등 다채로운 체험이 마련돼 아이들과 보호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행사 당일에는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과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한 선착순 300명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며, 현장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된다.

아울러 사전 이벤트로 ‘용인8경에서 반려동물과 찍은 이색 사진 콘테스트’가 열려, 참여자 중 우수작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yonginp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문화를 배우고, 유기동물 입양과 펫티켓 실천이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 Гёнгй аймгийн гадаад иргэдэд зориулсан гурван төрлийн онцгой дэмжлэг — хүүхэд асаргаа, халамжийн үйлчилгээ, соёлын хөнгөлөлт

## Гадаад иргэний хүүхдэд олгох хүүхэд асаргааны төлбөрийн дэмжлэгийг өргөтгөх

Гёнгй аймаг аравдугаар сараас эхлэн гадаад иргэний хүүхдэд олгодог хүүхэд асаргааны төлбөрийн дэмжлэгийн хэмжээг сарын 100 мянган воноос 150 мянган вон болгон нэмэгдүүлэхээр болжээ.

Гёнгй аймаг бүх хүүхэд ялгаварлалгүйгээр тогтмолтой, аюулгүй орчинд өсөж хүмүүжих боломжийг бүрдүүлэх зорилгоор 2023 оноос эхлэн аймгийн нутаг дэвсгэрт байрлах цэцэрлэгүүдэд суралцаж буй 0–5 насны гадаад иргэний хүүхдүүдэд сар бүр 100 мянган воны хүүхэд асаргааны төлбөрийн дэмжлэг үзүүлж ирсэн байна. Харин сүүлийн үед үнийн өсөлт болон цэцэрлэгийн төлбөр нэмэгдсэнтэй холбогдуулан гадаад иргэдийн өрх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ачааллыг харгалзан дэмжлэгийн хэмжээг сар бүр 50 мянган воноор нэмэгдүүлэхээр шийдвэрлэжээ.

Дэмжлэг авах зорилтот бүлэг болон шалгуур нөхцөл нь өмнөхтэй адил хэвээр байна. Дэмжлэгт хамрагдах боломжтой хүмүүс нь аймгийн нутаг дэвсгэрт байрлах цэцэрлэгт хамрагдаж буй 0–5 насны бүртгэлтэй гадаад иргэний хүүхдүүд бөгөөд, хүүхэд болон түүний асран хамгаалагч хоёулаа Гёнгй аймагт 90 хоногоос дээш хугацаанд оршин суусан байх шаардлагатай. Асран хамгаалагч нь тухайн цэцэрлэгт хүүхэд асаргааны төлбөрийн дэмжлэг авах хүсэлт,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бүртгэлийн тодорхойлолт зэрэг холбогдох бичиг баримтыг бүрдүүлэн өгнө. Дараа нь “Үндэсний аз жаргал карт” (국민행복카드)-ыг авч, тухайн картаар төлбөр тооцоо хийснээр хүүхэд асаргааны дэмжлэгийг авах боломжтой.

Хүүхэд асаргааны бодлогын хэлтсийн дарга Ку Хён Сүг хэлэхдээ, “Хүүхэд асаргааны төлбөрийн дэмжлэгийг өргөтгөснөөр гадаад иргэний нялх, бал

чир хүүхдүүдийн асран хамгаалагчдын хүндрэл, ачааллыг бууруулж, ялгаваргүйгээр хүүхэд бүрт ижил асаргааны боломжийг олгохыг зорьж байна. Бид бүх хүүхэд эрүүл, аз жаргалтай өсөж хөгжих боломжтой байх үүднээс хүүхэд асаргааны орхигдсон хүрээг арилгахын төлөө бүхий л хүчээ гаргах болно” гэж мэдэгджээ.

## Хүүхэд халамжийн хамтын орлогын тэтгэмж хүсэлт гаргах

Гёнгй аймаг “Хүүхэд асаргааны хамтын нийгэмлэгийн орлогын дэмжлэг”-ийг хэрэгжүүлснээс хойш нэг жилийн дотор оролцсон хамтын нийгэмлэгүүд болон асаргаанд хамрагдаж буй хүүхдүүдийн тоо аль аль нь 6 дахин нэмэгдсэн гэж аймаг 12-ны өдөр мэдээлэв. “Хүүхэд асаргааны хамтын нийгэмлэгийн орлогын дэмжлэг” гэдэг нь төрийн халамж хүрч чадахгүй, орхигдсон хэсгийг нөхөх зорилгоор иргэд сайн дурын үндсэн дээр байгуулсан хамтын асаргааны бүлг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г дэмжих журам юм.

Энэ нь төлбөргүйгээр хөршийн хүүхдүүдийг асрах нийгмийн үнэт зүйлсийг албан ёсоор хүлээн зөвшөөрч, орлогын дэмжлэг олгож оролцоог идэвхжүүлэх зорилготой.

Энэ оноос эхлэн орлогын дэмжлэгийн хэмжээ нь сарын 30 цагийн идэвхтэй оролцооны тохиолдолд 200 мянган воноор, сарын 15 цаг ба түүнээс дээш оролцоход 100 мянган воноор олгохоор болжээ. Мөн олон соёлт гэр бүлүүд иргэншлээс үл хамааран, эсвэл санал нэгтэй хүмүүсийн хамтаар хүүхэд асаргааны хамтын нийгэмлэг байгуулан оролцох боломжтой.

Эхний жил буюу 2024 оны 9 сард 23 хамтын нийгэмлэгт харьяалагддаг 57 иргэнд анх орлогын дэмжлэгийг олгож эхэлсэн бол, энэ оны 9 сард 29 хо

т, дүүргийн 150 хамтын нийгэмлэгт харьяалагддаг 520 иргэнд орлогын дэмжлэг олгогджээ. Энэ хугацаанд асаргаанд хамрагдсан хүүхдүүдийн тоо 524-аас 3,403 болж өссөн байна. Хүүхэд асаргааны хамтын нийгэмлэгийн орлогын дэмжлэгт оролцох хүсэлтийг сар бүрийн 1-ний өдрөөс 10-ны өдөр хүртэл Гёнгй иргэний үйлчилгээ 24 вэбсайтаар (gg24.gg.go.kr) гаргах боломжтой.

## ‘도답소’ нэртэй жижиг хуримын ёслолын газар нээгдлээ

Гёнгй аймаг иргэдтэй харилцах төв орчин болох “도답소”-г жижиг хуримын ёслол зохиох зориулалттай газар болгон нээж, анхны хосуудыг бүртгэж эхэлжээ. Өмнө аймгийн даргын албан байр байсан 도답소-г ардчилсан 8 дахь засаг захиргааны үед иргэдэд зориулсан харилцан яриа, уулзалтын төв болгон шинээр тохижуулж, төрөл бүрийн соёлын тоглолт, туршлага хуваалцах үйл ажиллагаа зэрэг арга хэмжээнүүдээр иргэдтэй уулзаж байна.

Жижиг хуримын ёслол жил бүр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гдах бөгөөд долоо хоног бүрийн Бямба, Ням гарагт өдөрт нэг удаа явагдана. Ёслолыг гадаа цэцэрлэгт зохион байгуулдаг бөгөөд цаг агаар тааруу байх эсвэл өвлийн улиралд том хурлын танхимыг ёслолын газар болгон ашиглана.

Зочдын тоо 100 хүртэл хүн байхаар зохицуулагдаж, ашиглах төлбөр нь ойролцоогоор 30 мянган воноор тогтоогдсон байна. Ёслолын явц, чимэглэл, хүлээн авалт зэрэг нь анхны хосуудын хүссэнээр чөлөөтэй төлөвлөх боломжтой.

Гёнгй аймагт оршин суудаг эсвэл аймагт байрлах ажил, сургуульд хамрагддаг оршин суугч бол хэн бүхэн “도답소” жижиг хуримын ёслолд хамрагдах боломжтой. <한글 기사 1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 에너지바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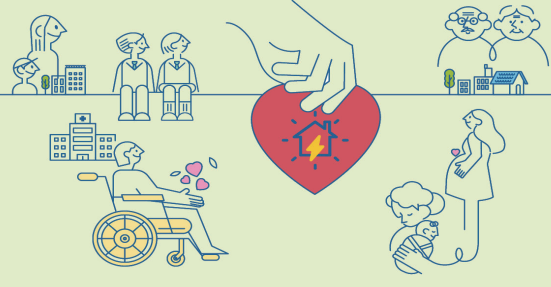
문의해주세요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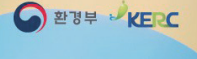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www.15990903.or.kr

지금 예약하기



인터넷(모바일) 접속

www.15990903.or.kr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99-0903

경기도 출생 축하카드 발송 사업

## 이 세상에 온 모든 아기를 진심으로 환영해요!

우리 아기의 사진이 들어간 특별한 축하카드를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2025. 1.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경기도 거주 가정

**신청기간** 2025. 12. 31. 까지 신청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내용** 경기도 거주 출생아 대상으로 디지털 축하카드 발송

- 디지털 축하카드 이미지를 휴대전화 MMS(LMS) 메시지로 발송

**카드구성** 아기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특별한 축하카드로 소중한 추억을 간직해 보세요

**신청방법** 경기민원24 페이지 온라인 신청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용인특례시와 함께한 필리핀 농구리그...승패 넘어 우정 나누다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8개팀 250여명 참가한 '필리핀 원데이 농구리그' 개최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김용국)와 필리핀 자조모임인 Gyeonggi Filipino Immigrant Community(GFIC)는 지난 9월 28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했다. 이번 대회에는 8개 팀 선수단과 250여 명의 이주민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필리핀대사관의 어니스트 조셉 피. 디가(Ernest Joseph P. Diga) 2등 서기관이 참석해 격려사를 전했으며, 용인서울병원, Samsung Financial Networks 등 주요 기관이 협력에 나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개막식은 필리핀·한국 양국 국가 제창으로 시작됐다. ▲참가팀 및 뮤즈 퍼레이드 ▲경희대 화랑K타이거즈 태권도팀 시범공연 ▲노래 공연 등이 이어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베스트 유니폼', '베스트 뮤즈', 'MVP', '베스트 스코어러' 등 다양한 개인상과 팀상이 수여되며 선수들의 열정을 북돋웠다.

치열한 경합 끝에 GFIC 팀이 최종 챔피언에 올랐으며, 참가자들은 승패를 넘어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

회 의원은 “필리핀 원데이 농구리그가 이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리고 교류하는 뜻깊은 장이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이 지역 곳곳에서 활발히 펼쳐져 다문화 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FIC 대표 김연정, 레벨린 가르시아(Revelyn Garcia) 리더는 “이 행사를 가능하게 해준 용인특례시와 협력 기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참가자 모두가 무사히 경기를 마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김용국 센터장은 “오늘 행사는 이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리며 마음을 열고 웃음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즐거운 스포츠 교류를 통해 다문화 사회 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는 국가별 자조모임과 함께 농구, 축구, 크리켓 등 다양한 스포츠 대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용인을 대표하는 이주민 선수 발굴 및 다문화 교류 활성화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 일본 구마모토시 대표단과 교류 논의...용인특례시, 반도체.캐릭터 산업 협력 등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일본 구마모토시와 교류도시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29일 반도체산업 육성, 청소년 교류, 관광 유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용인을 방문한 일본 구로

키 요시카즈 구모마토시 경제관광국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시청을 방문해 반도체산업을 비롯해 양 도시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구마모토시는 일본 구마모토현의 중심 도시로, 일본에서 최다 발착 수를 기록한 사쿠라마치 버스터미널을 보유한 대도시다. 시는 지난 4월 반도체산업과 캐릭터 문화 상생 발전을 위해 교류 의향 서한을 발신하기도 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양 도시의 일반 현황

을 공유하고, 구마모토시에서 추진 중인 TSMC 공장과 용인에서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협력 가능성을 집중 논의했다. 또, 반도체 산업 확대에 따른 외국인 인구 유입에 대비해 관련 교육기관 설립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 중장기 교류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양 도시는 반도체 클러스터 발전으로 외국인 유입이 급증하는 상황을 공감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 협력의 시급성에 뜻을 모았다. 또, 상호 교류의 잠재력

을 확인하고, 자매, 우호도시 결연 추진을 위한 절차를 협의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구마모토시의 자매결연 절차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구로키 요시카즈 국장은 “용인특례시와 구마모토시 실무자들이 온라인 화상 회의를 정례화해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협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의 기자





지역사회 이웃에 따뜻한 마음 전해요  
K-water와 연천군가족센터, '나눔 드림' 전달식

연천군가족센터(센터장 조금량)는 지난 10월 1일 센터 교육실에서 ‘2025년 k-water와 함께하는 한가위 나눔 드림’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은 군남면 인근 지역의 취약계층 가정이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K-water 연천포천권지사가 마련한 나눔박스 80세트 (한우사골세트, 햅쌀, 부침가루 등 생필품 구성품)가 이날 총 80가구에 전달됐다.

이번 행사에는 연천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하숙희 팀장, K-water 연천포천권지사 이영목 지사장, 연천군가족센터 조금량 센터장, 연천읍·군남면·왕징면·신서

면 등 12개 리 이장, 그리고 지원 대상자 대표 등 21명이 참석했다. 이영목 지사장은 “한가위를 맞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선곡리 이원만 이장은 “마을 어르신들을 챙겨주셔서 감사드린다.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금량 센터장은 “취약가정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한 나눔박스를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연천군, ‘국화와 울무’로 가을  
향연...10월 축제 잇달아 개최

연천군은 오는 10월 17~26일 전곡리 유적지에서 국화 축제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5ha 규모의 축제장에는 작품국·분재국·임체조형물을 비롯해 숲속이 어우러진 포토존이 조성되는 등 모두 1천여 점의 국화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숲속정원, 국화정원, 역사정원, 구석기정원 등 연천의 지역성과 스토리를 담은 공간이 조성된다.

지역 농가가 참여하는 농산물 판매장에서는 연천에서 생산한 쌀, 곡물, 과일 등 신선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어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연천 울무축제’가 개최된다. 연천군 특산물인 울무를 주제로 한 시식 행사, 가공품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이 준비돼 지역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국화축제와 일정이 겹쳐 방문객들은 가을꽃의 향연과 함께 농산물 체험을 동시에 즐기는 색다른 경험을 누릴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선사유적과 어우러진 국화정원을 통해 연천의 자연과 문화가 지닌 매력을 한눈에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아름다운 연천을 추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Hãy cùng gia đình dạo chơi bất cứ lúc nào với “Thẻ Gyeonggi i-Plus  
‘경기아이플러스카드’ (Thẻ ưu đãi cho gia đình có nhiều con)” nhé!

Tỉnh Gyeonggi đang hỗ trợ để nhiều người dân Hàn Quốc và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có thể sử dụng “Thẻ Gyeonggi i Plus” ‘경기아이플러스카드’ hơn trong tháng 10 này.

Thẻ Gyeonggi i-Plus là một chương trình do Tỉnh Gyeonggi phối hợp với Ngân hàng Nông nghiệp (Nonghyup) và BC Card triển khai, nhằm hỗ trợ các gia đình có từ hai con trở lên về mặt kinh tế và đời sống văn hóa. Từ năm nay, độ tuổi của con út được mở rộng từ dưới 15 tuổi lên dưới 18 tuổi, và tính đến cuối tháng 6, đã có hơn 12.000 thẻ mới được phát hành.

Các ưu đãi chính bao gồm: ▲Giảm 7% tại các cơ sở luyện thi và bệnh viện, phòng khám ▲Giảm 5% tại trạm xăng GS, quán cà phê, trung tâm thương mại và cửa hàng tiện lợi ▲Giảm giá khi sử dụng bãi đỗ xe công cộng trong tỉnh Gyeonggi ▲Dịch vụ giảm giá trực tiếp tại các cửa hàng đối tác.

Danh sách cửa hàng đối tác đang được mở rộng liên tục, với sự tham gia của nhiều ngành nghề như

quán học nhóm (study café), phòng khám – bệnh viện, cửa hàng quần áo, võ đường Taekwondo, siêu thị, v.v. Từ tháng 10, “Aqua Planet Gwanggyo” ‘아쿠아플라넷 광고’ cũng đã trở thành cửa hàng đối tác mới.

“Aqua Planet Gwanggyo” ‘아쿠아플라넷 광고’ là thủy cung nơi bạn có thể gặp gỡ hơn 30.000 sinh vật biển và trên cạn thuộc hơn 210 loài sống giữa lòng thành phố. Chủ thẻ Gyeonggi i-Plus khi xuất trình thẻ tại quầy sẽ được giảm 30% giá vé người lớn (áp dụng cho tối đa 4 người đi cùng).

Ưu đãi này được kỳ vọng sẽ giúp các gia đình có nhiều con tiết kiệm đáng kể chi phí cho các chuyến tham quan văn hóa.

Ngoài ra, thẻ Gyeonggi i-Plus còn mang lại nhiều ưu đãi đa dạng như giảm 50% giá vé tự do cho chủ thẻ tại các công viên giải trí lớn như Làng Dân gian Hàn Quốc, Seoul Land, Lotte World, Everland, E-World và nhiều nơi khác. Để đăng ký thẻ, bạn chỉ cần mang theo giấy tờ tùy thân và sổ hộ khẩu (hoặc giấy xác nhận cư trú) đến chi nhánh Ngân hàng Nông

nghiệp (NH Nonghyup, tổng đài thẻ: 1644-4000) gần nhất để làm thủ tục.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có từ hai con trở lên cũng đừng ngần ngại hãy đến Nonghyup để đăng ký thẻ ngay nhé!

Các cơ sở kinh doanh mong muốn tham gia làm đối tác liên kết có thể tải đơn đăng ký tại trang web của thẻ Gyeonggi i-Plus (ggiplus.bccard.com) và gửi đến Phòng Chính sách Gia đình của tỉnh Gyeonggi qua địa chỉ email gg4829@gg.go.kr.

Ông Im Yong-gyu, Trưởng phòng Chính sách Gia đình tỉnh Gyeonggi, cho biết: “Trong thời đại tỷ lệ sinh thấp hiện nay, việc cùng chia sẻ những khó khăn thực tế của các gia đình nuôi dạy con cái và tăng cường các biện pháp hỗ trợ thiết thực là điều quan trọng nhất.

Tôi hy vọng mọi người sẽ tận dụng đa dạng các ưu đãi của thẻ Gyeonggi i-Plus để có thể dành những khoảng thời gian đặc biệt bên gia đình.”

〈한글 기사 9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10개 지역사회서비스 985명 모집

성남시 ‘아동·장애인·노인·가족’ 등 대상 제공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아동·장애인·노인·가족 분야의 ‘2025년 하반기 10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참여자 985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에게 1년간 월 3만~18만원의 바우처(이용권) 카드를 지급하고, 상담·치료, 역량 개발 등 각 지원 분야 서비스 제공기관(총 82곳)을 선택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서비스 분야별 모집 인원은 △우리

아이 심리 지원 276명 △아동 비전 형성 지원 95명 △아동 정서 발달 지원 74명 △아동 예술 멘토링 지원 91명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20명 △장애인 맞춤형 운동 50명 △노인 맞춤형 인지 정서 지원 88명 △보완 대체 의사소통 기기 활용 중재 10명 △시각장애인 안마 204명 △우리 가족 통합 심리 지원 77명이다.

이용 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의 서비스별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기한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 전세사기 예방 상담 부스 운영

10월 22~23일 신구대서… 민·관·학 협력 진행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구대학교 신구 EXPO 행사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상담 부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구대학교가 협력해 마련된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대차분쟁 조정 절차를 시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전접수(온라인 신청 및 유선)와 현장접수를 병행해 순차적으로 상담이 진행되며, 22일 오후 1시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대차분쟁조정 사례 중심 특강’도 열린다. 상담 부스에서는 △임차인 체크리스트 △강통전세 유형 및 확인 방법 △안심전세 실천 요령 등 실질적인 피해예방 정보

를 안내하고, 전세 계약 만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분쟁조정 사례와 해결 방안도 함께 상담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재난에 가깝다”며 “이번 상담 부스가 시민들에게 사전 예방의 안전망이 되길 바라며, 특히 사회 초년생이 첫 주거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민·관·학이 협력해 시민의 주거 안전을 함께 지키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성남시가 중심이 되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성남시가족센터

이용자 욕구조사

더 나은 가족 지원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들려주세요!



설문 기간

2025년 10월 16일부터 11월 7일까지

참여 대상

성남시민 누구나

참여 방법

아래 QR코드로 접속하여 참여 가능



의견을 들려주세요!  
답변해 주신 분들 중 20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선정 후 방문수령)

 성남시가족센터

희망도시  

사회복지법인 행복복지재단

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교실 이용 안내

우리 아이 언어발달, 지금 어디쯤 왔을까요?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를 평가하고,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및 기간

모집대상

만 12세 이하의 영유아 ~ 초등학교(다문화가족자녀, 외국인자녀, 북한이탈주민)

모집기간

2025년 1월~12월 (상시모집)  
\* 중복지원 불가 대상  
- 방문서비스 중 자녀대상 한국어, 자녀생활서비스를 이용중인 경우  
- 바우처(언어치료서비스)를 이용중인 경우

서비스내용

언어발달 평가

- 평가 회수 : 아동 1인당 2~4회(30분~1시간/회)  
- 평가방법 : 전반적 언어발달검사, 어휘력, 구문이해력, 언어문제해결력, 발음

언어발달 교육

- 교육시간 : 개별 또는 모둠 수업으로 주2회(40분/회)  
언어발달 수준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정해지며 최대 3회 연장 가능

평가 및 교육 장소

- 성남시가족센터 언어발달교실  
- 다문화가족 자녀가 있는 성남시 유아교육 기관

신청 방법

- 다문화가족 개별 신청 및 유아교육 기관 신청

- 전화접수 후 센터 내 '언어발달교실'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우선선정순위 : 증빙서류 지참 (수급자, 한부모, 조손, 맞벌이, 다자녀, 장애질환가정, 차상위계층, 도서벽지거주)

문의

031-757-9327 박초이, 조희은 언어발달지도사

 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 자녀, 놀이형 한글 교육 필요!  
신미숙 도의원, 다문화학생 교육 체계 마련 논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9월 29일 다문화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세 번째 실무자 간담회를 갖고 교육과정별 다문화학생 지원 방안 강구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다문화 아이들이 유아 단계부터 고등학교까지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담당자가 참석하여 경기도 내 다문화 유아 현황을 공유했으며,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문화 아동

을 위한 교육 지원이 시급함을 언급했다. 신 의원은 “언어 발달 시기인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형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어린이집·유치원에서부터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체계를 탄탄히 다져나가 줄 것”을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요청했다.

신 의원은 또한 “학년별로 수준에 맞는 한국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업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논의를 통해 화성시와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지원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화성시가족센터 ‘가족, 그림책으로 소통하고 색으로 공감해’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9월 20일과 9월 27일 양일에 걸쳐,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및 친밀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그림책테라피를 통한 부모, 자녀 친밀감 향상 프로그램(부모·자녀 대상) ▲TA드라이버 카드로 양육스타일 확인 및 건강한 양육 방법 알아보기(부모 대상) ▲미술치료를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하기(자녀 대상) ▲색채심리 및 팝아트로 가족애자 만들기(부모·자녀 대상) 등이 1,2차에 나눠 진행됐다.

박미경 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증진하고 친밀감을 향상하여 화성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사례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모 자녀 친밀감 향상 프로그램 관련 문의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상담사레팀(070-7774-7088)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 화성형아이키움터

## 아빠 품앗이 모여라

아빠품앗이가 뭐예요?  
비슷한 때려, 비슷한 흥미를 가진 이웃끼리 모여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교환하는 모든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학습, 체형, 놀이 등을 함께하는 **아빠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육아활동**입니다.

**신규가입 회원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시 : 10월 25일(토) 10:00 ~ 13:00  
장소 : 아기농부(화성시 양광면 독줄길 33-17)

아빠와 함께하는  
고구마캐기,  
샤인머스켓 사벳만들기,  
동물먹이주기,  
비눗방울놀이,  
자유놀이 등  
다양한 체험활동

**아빠 품앗이**

신청기간 : 2025년 9월 12일~10월 24일까지  
모집대상 : 만 12세 미만 자녀를 둔 가족  
(아빠를 중심으로 형성된 아빠품앗이)  
모집그룹 : 1그룹당 2~5가족 형성  
신청방법 : 각 지정별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각 지정으로 문의 바랍니다.

▶ 동탄호연/동탄신동 031-377-8802 ▶ 동탄행복 070-8831-3469  
▶ 동탄호수/동탄늘봄 031-372-2732 ▶ 동탄산책/병점 031-378-8744  
▶ 새솔/맑매촌은 031-355-5890 ▶ 향남/남양 031-366-5885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HWASEONG SPECIAL CITY

가족센터 화성시가족센터

화성형 아이 키움터

# 아동의 언어 발달을 위한 책 속에서 속속 말자람

사업일시 : 10월 25일 & 11월 08일  
토요일 10:00~12:00

본 센터에서는 화성시 관내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용/대기 중인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촉진 방법을 안내하는 부모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상**  
· 언어발달서비스 이용 및 대기 중 (부모&자녀) 다문화가족 10가정

**장소**  
10월 25일(토): 화성시가족센터 3층 다목적실 1  
11월 08일(토): 화성시가족센터 3층 동아리실

**문의 사항**  
· 특성화사업팀 070-8831-8622

**수업 안내**  
· 그림책과 놀이를 활용한 언어 자극 방법  
· 감정코칭 언어 사용법 및 실천 활동/ 이중언어 습득 촉진 방법

**신청방법**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HWASEONG SPECIAL CITY

가족센터 화성시가족센터  
HWASEONG FAMILY CENTER



## Gyeonggi Province Expands Childcare Support for Foreign Children, Opens Applications for "Childcare Community Opportunity Income" Program



### Expanding childcare support for foreign children

Gyeonggi Province will increase its childcare subsidy for foreign children from 100,000 won to 150,000 won per month, starting in October.

To ensure that all children can grow in a stable childcare environment without discrimination, Gyeonggi Province has been providing monthly childcare subsidies of 100,000 won for foreign children (ages 0-5) attending daycare centers in the province since 2023.

However, due to recent inflation and rising childcare costs, the province has decided to increase the subsidy by 50,000 won per month, taking into account the financial burden on foreign families.

The eligibility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remain the same. Eligibility is open to registered foreign infants and toddlers (ages 0-5) attending a daycare center in the province. Both the guardian and the infant and toddler must have resided in Gyeonggi Province for at least 90 days.

To receive the subsidy, guardians must submit a childcare subsidy application form and other relevant documents, including a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to the relevant daycare center. They must then receive the National Happiness Card and use it to make payments.

Koh Hyun-sook, head of the Childcare Policy Division, said, "We will do our best to eliminate blind spots in childcare by expanding childcare support to reduce the

burden of childcare for foreign guardians of infants and toddlers, and by providing equal childcare opportunities so that all children can grow up healthy."

### Apply for 'Childcare Opportunity Income'

Gyeonggi Province announced on the 12th that the number of participating communities and children in care has increased more than sixfold in just one year since the implementation of its "Childcare Opportunity Income."

"Childcare Opportunity Income" supports the activities of neighborhood care communities formed voluntarily by residents to fill gaps in public care. It recognizes the social value of providing free care to neighboring children and encourages participation by providing opportunity income.

Starting this year, stipends will be increased to 200,000 won for 30 hours of activity per month and 100,000 won for 15 hours or more.

Multicultural families can also form childcare communities based on nationality or with like-minded individuals.

Payments began in September 2024, the first year, to 57 residents from 23 village communities. This September, 520 residents from 150 communities in 29 cities and counties received opportunity income. The number of children receiving care also increased from 524 to 3,403 during the same period. Applications for child care opportunity income can be submitted from the 1st to the 10th of each month on the Gyeonggi Civil Service 24 website (gg24.gg.go.kr).

### Dodamso Opens Small Wedding Hall

Gyeonggi Province is opening "Dodamso," a community space for

residents, as a small wedding venue and recruiting its first couples.

Formerly the governor's official residence, Dodamso has been renovated as a communication space for residents of the 8th elected government, hosting a variety of events, including cultural performances and hands-on experiences.

Small weddings are held year-round, once a day every Saturday and Sunday. Ceremonies are held in the outdoor garden, and during inclement weather or in winter, the grand banquet hall is used as a venue. The number of guests is limited to 100, and the rental fee

is approximately 30,000 won. The couple can freely plan the ceremony, decorations, and reception.

Any couple residing in Gyeonggi Province, or anyone working or attending school in the province, can hold their wedding at Dodamso Small Wedding.

Applications can be made up to six months prior to the ceremony, and reservations can be made online at the Gyeonggi Share Service website (share.gg.go.kr), by phone (031-8008-3716), or in person. Approval results and reservation-related information will be sent via text message. <한글 기사 1면>

PapayaStory

**화성형아이키움터 공간이벤트**

# 토요일은 아, 이, 키

(아빠랑, 아이랑, 아이키움터로) GoGo!!

함께 웃고, 함께 놀고, 함께 추억을 쌓는 시간,  
**화성형아이키움터에서** 아이와 아빠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 ✓ **진행일시** 2025년 10월 25일(토) 9:00 ~ 13:00
- ✓ **접수기간** 2025년 9월 24일(수) 11:00~모집완료시
- ✓ **참여대상** 화성시거주 아빠와 자녀(각 지점 20가정)  
아빠와 자녀만 입장가능
- ✓ **장 소**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점, 새솔점, 동탄호연점
- ✓ **내 용** 아빠와 함께 하는 화성형아이키움터 공간이용  
(장난감놀이, 주방놀이, 블럭활동 등)
- ✓ **접수방법** 화성형아이키움터 홈페이지 사전예약  
(회원가입-로그인-공간이용예약-지점명)
- ✓ **문 의** 향남 366-5885 새솔 355-5885 동탄호연 377-8802

가동센터 화성시가족센터 화성형(아)키움터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지난 9월 27일 화성시 내 이주배경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화성시 프로젝트 169-미등록 이주아동 보편적 출생등록 및 기본권 보장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은 ‘한국에서의 금융 생활’, ‘자녀를 위한 용돈 관리 교육법’ 등을 배우며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경제 지식과 자산 형성 방법을 익혔다.

미등록 이주가정을 비롯해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정, 외국국적 동포가정 등 다양

한 배경의 21가정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부모 대상 금융교육과 더불어, 자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활동으로 구성됐다. 아이들은 ‘푸드테라피-오란다 만들기’ 체험에 참여했고, 마지막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보드게임 ‘금융신포스-안전을 부탁해’를 통해 금융 개념을 즐겁게 익혔다.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 중 76~80%가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매우 긍정’이라고 답했으며, 재참여 의사도 90.5%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 내용의 적절성’(71.4~76.2%), ‘지역 내 다른 다문화가

정 부모들과의 교류 계기’(81%), ‘자녀를 더 이해하게 된 계기’(71.4%) 항목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자녀와 함께한 보드게임이 인상 깊었다(몽골어)”, “비슷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나서 좋았다(러시아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됐다(네팔어)”, “금융 점수를 이해하게 되어 유익했다(태국어)”, “이런 교육이 자주 열리면 좋겠다(중국어)” 등의 소감을 전했다.

한편, ‘화성시 프로젝트 169’는 화성특례시,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JB금융그룹, JB우리캐피탈

이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아동 권리 옹호 사업이다.

이 사업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비를 포함한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하며, 미등록 체류 이주가정의 0세~13세 자녀, 다문화 및 외국인가정의 신생아도 출생등록 및 건강보험 가입 전까지의 공백 기간에 질환이 발생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통합응답지원팀(070-4115-1102, 0161 / hsgyc1014@naver.com)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 문화더함공간서로 화성-베트남여성회, 베트남 전통명절 ‘땃중투’로 지역사회와 소통

문화더함공간서로(서로장 김유리)는 지난 10월 12일 화성-베트남여성회가 주관한 베트남 추석 ‘땃중투(Tết Trung Thu, 중추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이주민과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교류하는 화합의 장이 됐다.

‘땃중투’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전통명절로, 가족이 모여 달을 감상하며 풍요와

행복을 기원하는 날이다. 이날 문화더함공간서로에서는 베트남여성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져,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며 고향의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행사는 베트남어와 한국어로 진행된 사회를 시작으로, 베트남 전통악기 ‘떠룽’ 공연이 선보여져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어 중추절 차례상 꾸미기, 월병 만들기 체험, 전통놀이 체험 등 다채로운

활동이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웃음과 대화를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나누었다.

이날 참석한 참여자는 “아이들과 함께 베트남 명절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라며 “이런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고향 문화를 잊지 않고 이어갈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유리 서로장은 “베트남여성회가 주체적으로 준비한 이번 행사는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의 주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더함공간서로는 화성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소통·교류의 거점공간으로 앞으로도 각국의 전통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함께 하는 한국생활, 요리로 피어난 우정**  
**화성시가족센터, '한국생활 처음' 프로그램 운영 눈길**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생활 처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한국 입국 5년 이내 결혼이민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생활 처음'은 5회기에 걸쳐 한국 일상음식인 잡채, 김밥, 진미채 볶음, 삼계탕, 열무김치 등을 만드는 한국음식 쿡이 진행됐다. 마지막 회기에는 한국의 전통 예절과 다도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로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친구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베트남 출신의 한 결혼이민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한국 요리와 예절도 배울 수 있어 너무 좋았다. 이제는 외롭

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 입국 2년 차인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여성은 "예절교육과 다도 체험이 즐거웠고, 한국 문화를 잘 알려주셔서 한국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참여자들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 모국의 가족들에게 보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화성시가족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의 식문화와 예절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화성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한식 라이브' 프로그램을 운영해 김치 및 떡 만들기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2월에는 '행복 나눔 행사-김치~~'를 통해 직접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 송편에 마음을 빛다, 1인가구 따뜻한 명절

화성시가족센터, 1인가구 대상 추석맞이 송편 체험 진행해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10월 1일 화성시 관내 1인가구 33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송편 만들기' 절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민족 대명절을 맞아 전통 음식인 송편을 직접 빚으며 명절의 의미와 정서를 되새기고, 더불어 1인가구 간 정서적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프로그램은 ▲송편의 의미·종류·재료 소개 ▲강사 시연 ▲삼색 송편 만들기 ▲참여자 간 추석 계획 나누기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랑의 편지 쓰기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만든 송편과 함께 직접 작성한 편

지를 가족, 지인에게 전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한 참여자는 "추석을 맞아 색다른 경험을 해 잊었던 명절의 의미를 찾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송편도 직접 빚어보고 오랜만에 손편지를 쓰며 가족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어 더 특별했다."라며 "강사님과 기획해 주신 화성시가족센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이번 송편 만들기 프로그램은 1인가구가 명절 문화를 체험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가족과 지인에게 정을 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였다. 앞으로도 1인가구의 생활과 정서적 필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오는 10월 17일부터 노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웰다잉 집단상담'을 8회기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상담은 노년기 삶의 의미와 마무리를 함께 성찰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내 1인가구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노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김영의 기자

## 화성다크투어...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해요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오는 25일부터 '2025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생생문화재)'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어서와~ 화성 다크 투어는 처음이지?'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진행되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과정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생,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과 화성 3.1운동만세길에서 3주간 총 5회에 걸쳐 열린다. '어서와~ 화성 다크 투어는 처음이지?'는 외국인 유학생 및 한국인 대학생,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및 화성 3.1운동만세길에서 오는 25일부터 3주간 총 5회차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미션 수행과 탐방에 참여하며, 독립운동 영자신문 만들기, 태극기 키링 제작 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화성 3.1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게 된다.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전화 또는 문자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홍보 포스터와 문의처를 참고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 화성특례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고위험 지역 집중 관리 나서요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가을철 농작업과 야외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서부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최근 3년간 전체 환자의 74.3%가 가을철(9~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화성시서부보건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1월 말까지 서부권 경로당 15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서남부권 행정현수막 게시대 31개소에 예방수칙 홍보 현수막을 게시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 및 긴소매·긴바지·모자 등 착용으로 피부 노출 최소화 ▲야외활동 후 즉시 샤워 및 옷 갈아입기 ▲얼굴, 귀, 목통 등에 진드기 부착 여부 확인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야외활동 후 2~3주 이내에 발열, 두통, 검은 딱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드기 물림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광매한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등 모든 시민들이 가을철 야외활동 시 진드기 물림에 주의하고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